

국제이해교육연구

연구 논문

- 인권교육적 견지에서 본 우리나라 양성평등교육의 성과와 한계 강순원
 시흥 관내 초·중학교의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활성화 방안 경혜영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관계정립을 위한 연구 김현덕

현장 연구

- ICT를 통한 교육활동 교류로 하나 되는 '지구마을' 김명순
 주제별 다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자질 함양 백옥련
 경제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 김은희

국제이해교육연구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제2호

Vol. 2 | November 2007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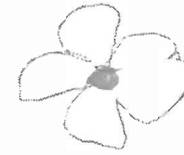
차 례 | Contents

연구 논문 | Research Papers

강순원 인권교육적 견지에서 본 우리나라 양성평등교육의 성과와 한계	07
경혜영 초·중학교의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활성화 방안	31
김현덕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관계 정립을 위한 연구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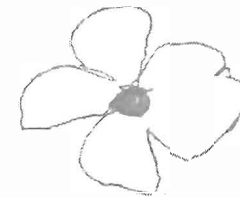
현장 연구 | Case Studies

김명순 ICT를 통한 교육활동 교류로 하나 되는 지구마을 ...	77
백옥련 주제별 다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자질 함양	95
김은희 경제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	115



연구 논문

Research Papers



[연구 논문]

인권교육적 견지에서 본 우리나라 양성평등교육의 성과와 한계

강순원 | 한신대학교 교수, 교육학(kangsw625@hotmail.com)

1. 머리말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말할 때는 늘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최근 여성 지위의 놀라운 신장을
여성성의 지체 및 부정으로 비판하면서 여성의 사회화를 슈퍼우
먼의 자질 속에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한다. 즉 사회에
서 일도 잘하면서 가정 일도 잘하는 슈퍼우먼의 개념을 은근히
부추기는 것이다. 오랜 동안의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
화에 길들여진 한국의 주류문화를 대안적인 양성평등문화로 변혁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주류문화의 저항과 그 문화에 길들여진 여
성층의 침묵과 여성 자신의 여성운동에 대한 저항은 현재까지 진
행되고 있는 인간해방적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어렵게 만드는 근
간일 것이다. 다행히 권위주의적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적 시

민정부를 밑으로부터의 힘에 의해 건설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양성평등정책과 그 실현에 있어서 엄청난 진전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는 늘 보수적 진영과 진보적 진영으로부터 상반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현 정부가 한나라당으로부터는 사회주의적 빨갱이 정권이라고 거세게 비난받는 반면 많은 시민단체로부터는 세계화에 편승하여 민중을 외면하는 신자유주의적 정권이라고 혹독하게 비판받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정부에 이은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존의 한국적 정서를 무시한 친여성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여성운동 단체로부터는 특히 가난한 여성의 생존권적 요구를 외면한 미완의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로 인해 사실 지난 정부의 여성정책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평가받고 있지는 않지만 정책수립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여성인권의 기준에 상당히 선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엘림, 2001)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래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남녀평등한 민주인권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국정지표를 주요 목표로 하여 친여성주의적 정책을 수립하였다.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불행이 존재하는 한 모두의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특히 권위주의적 정권아래서 열심히 여성해방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온 진보적 여성운동가들을 주요 정책수립부서에 배치하면서 일관성 있게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겨왔다. 무엇보다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어 있는 약자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개발이 강조되면서 여성은 크게는 여성 자체가 남성 주류문화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중 특히 취약여성층의 생산적 복지 체계로의 통합의 관점에서 정책을 접근하였다.(강순원 외, 2001b) 즉 여성 전체로서의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동시에 취약여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

야 한다는 정책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특히 여성부의 독립 이래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의 생활화, 여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의 맥락에서 추진되었다(김재인, 2002).

이러한 정책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주류사회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큰 성차별적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 즉 정책과 실행 사이의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는 현실적 벽을 어떻게 뛰어 넘느냐가 주요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여성 자신이 내려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방향이 향후 정책 개입적 개혁에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다. 만일 양성평등정책이 시혜적 차원에서 여성에게 베푸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여성들에게나 필요로 하는 저항적, 주변화된 정책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양성평등정책은 모두가 참여하는 여성운동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능력을 신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양성평등교육은 주변화된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성차별 교육이 아닌 보편적인 인권교육의 견지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성격 지어져야 할 것이다. 즉 취약여성으로 국한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인권신장이 인간해방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여성인권교육으로 승화될 때 사회적 약자간의 결속이 강화되는 보편성을 갖게 된다(정희진, 2005). 본 글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양성평등교육의 성과와 그 한계를 여성인권교육의 맥락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시킨 것은 그리 길지 않다. 봉건왕조, 식민지 그리고 해방 후 분단과 독재를 겪으면서 한국의 여성은 주류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오다가 오늘날 사회적 민

주화의 여정과 여성운동의 발전은 여성에 대한 명목적 차별을 잠재적(감추어진) 차별의 수준으로까지 올려놓았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위상의 향상과 더불어 실질적 차별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현금의 한국 여성운동의 과제일 것이다. 해방 후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사는 인권교육의 발달단계에 대응하여 대략 세단계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강순원, 2003).

제1단계는, 해방에서 1960년까지로 미몽의 여성정책 시기이다. 1948년 제헌헌법이 통과되고 헌법상 모든 사람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기본 원칙을 천명하였으나 이 기간 중 여성의 지위향상을 예고하는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쟁을 겪고 인구의 60% 이상이 농촌에서 가난하게 거주 하였던 시대적 조건 속에서 남성 우위의, 유교적 가부장주의에 근거한 여성차별은 숫한 가정 내 성폭력, 여성에 대한 교육차별, 여성의 순종과 정절에 대한 요구, 출산 및 육아를 포함한 가사일의 여성화, 남아선호 등으로 인해 전후 베이비 붐 시대의 여자들은 전통적 성별분업론에 따라 사회에서 철저히 주변화 되었다. 이 시기 여성운동은 가족법 개정 및 여성의 정치참여 등을 조용하게 주장하는 자유권적 목소리를 내는 선구적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제2단계는 1960년에서 1990년까지 소위 군부시대 민주화운동과 맥을 함께 하는 민중적 여성운동과 보수적 관변적 여성운동이 병행하는 시기이다.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경공업 노동자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유입한 여공들이고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저임금은 당시 권위주의적 군부독재에 저항하던 민주화운동과 여성노동자운동을 만나게 한다. 전태일 사건은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와 최저 임금에 혹사당하는 불쌍한 여공들의 문제를 죽음으로써 사회에 폭로하며 근본적인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알린 사건이다. 엄청난 노동운동이 가혹한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가열차게 일어났고 그 결과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인 육

아문제를 위한 지역탁아운동이 이루어지고 가정내 성폭력, 매대춘 문제, 가족법 개정 등을 여성단체에서 요구하게 되었다. 이의 결실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었다. 반면 독재정부를 비호하던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기층 여성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외면한 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혜로서 주어지던 정치적 낙하물들을 챙겼다. 그 결과 일부 여성 국회의원들이 탄생하였으나 실질적 정치력은 발휘하지 못하였다.

제3단계는 1992년 소위 문민정부 출범이래 분출된 시민운동의 발전과 여성운동의 비약적인 성과가 구체화되는 여성주류화 정책의 입안기이다. 민주적 정권교체의 승리로 군부독재가 청산되면서 그동안 저항적 민중운동이 정부부문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민운동으로 질적으로 승화되고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시민운동의 가장 강력한 부문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더욱이 경제발전과 도시형 핵가족화의 결과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남녀간의 교육격차가 줄어들면서 단순한 남녀고용평등의 형식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여성발전기본법’이 북경 행동강령에 맞춰 제정되었다. 이 기본법을 근간으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팔목할만한 여성정책들을 법제도화 하였으나 기존의 남성 우위적 정책이라는 벽을 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차별금지협약 및 1995년 북경선언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법적 기준 역시 한국의 여성정책을 선진화시키는 중요한 준거로서 작용하였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해결의 과제에 있어서는 UN을 비롯한 국제여성단체의 지원이 크게 작용하였고 그 결과 한국 정부도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였다. 미군 기지에서 빈번하게 일고 있는 미군에 의한 한국여성에 대한 폭행과 치사의 문제는 단순히 여성적 관점을 넘어서는 민족운동과 인권운동의 주제로서 부상하게 된다(정현백, 2003).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단체들이 보여준 헌신성은 여성의 사회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게 만들었다.

해방 후 한국 여성정책을 논할 때 여성 자신들의 적극적인 노

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은 이후 양성평등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사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양성평등교육은 단순히 학교에서 성차별 내용을 다루자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 양성평등문화를 전 사회에 실현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과제이자 곧 사회문화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점에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민주화운동의 공헌도 대단히 주목할만한 부분이다.(전교조 여성국, 1997) 그 결과 여성부의 독립이 실현되었고 교육부 내에 여성교육정책 담당관이 배치되는 등 정책입안을 위한 실질적 제도가 구축되었다. 양성평등교육은 이러한 제도적 정비위에서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이후 여성발전기본법의 21조 3항에 의거하여 법제화되면서 성 인지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양성평등교육이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3.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성과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집권 이래 국정지표로서 민주인권국가의 실현, 국민대화합 실현, 지식경제강국 구축,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협력 등 5대과제를 내걸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 문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승격하였고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경우 필요한 모든 구제책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여성정책이 빠른 시일 안에 근대화하는 한 계기가 되었던 점은 분명하다. (김선옥, 2000)

(1) 법제도적 차원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화의 면이다. 그 중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

과 정책의 집행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구제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성희롱 등 남녀차별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시행령, 남녀차별금지기준, 성희롱예망지침이 제정되었고, 남녀차별신고센터가 설치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행형법이 1999년 2월에 개정되고, 방송법이 성차별 금지조항을 누었고(2000.1.12 제정), 교육기본법이 남녀평등교육증진조항을 신설함으로써(2000.1.28 개정) 행형, 방송, 교육 분야에서 성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게 되었다. 그 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적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성차별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조사하며, 가해자에 대하여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제적 협약에 따른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편으로 국적법 개정을 통해 ‘유엔 여성차별금지협약’ 제9조 유보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였고¹⁾, 그 외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00호)에 가입하였고, ‘아동의 매매·매춘 및 아동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

1)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는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남성주의적 호주제에 의한 가족 개념에 집착함으로써 비준을 미뤄왔던 조항이다. 오늘날 국제적인 결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처와 자녀의 국적권이 부계를 따름으로써 오는 불공평성은 이주노동자의 문제와 함께 아주 복합적인 주제이다.

제9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서'에 서명하였으며,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및 대우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6호)에 비준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와 함께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법상 30% 여성할당제 도입하도록 하여 정당이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2000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시 각 정당이 30% 여성할당제를 상당부분 반영하여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11명 탄생하였다. 그 외 여성의 공직부문 참여확대와 관련하여,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폐지되어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임용시 성 차별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및 간접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인 모집·채용에서부터 임금, 교육·훈련·배치, 정년·퇴직·해고 시 일체의 성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고, 직장내 성희롱을 규율하며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이외에도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파견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둌으로써 고용현장에서의 성차별금지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2001.8.14 개정) 이에 따라, 산전산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고(근로기준법 제72조), 모성보호비용 중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30일은 고용보험을 통해 분담하게 되어(남녀고용평

등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 현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산전산후 휴가기간의 급여를 사회보험을 통하여 분담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제도적 요인을 없애버렸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여(2001.8.14 개정) 종전에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한 남성근로자였으나 모든 남녀근로자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중 해고금지, 휴직 후 복직보장, 육아휴직급여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법 제19조).

(2) 여성 사회참여의 확대

국민의 정부는 종전에 정무장관(제2)실이 지니고 있던 여성정책 총괄조정 및 기능의 제한된 기능을 극복하고자 1998년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6개 부처(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하여 관련 부처 내에서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2001년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개편하면서 여성에 대한 범부처간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며 집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종위원회에 2002년까지 여성위원 30%를 달성하고자 여성인적 자원에 관한 DB를 구축하는 등 현재까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여성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1998년 7월과 1999년 4월 2차례에 걸쳐 여성채용목표제를 확대하였는데, 1999년 18%, 2000년 20%이던 목표비율을 앞당겨 1999년 2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00년부터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술직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2000년 여경인력의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0년 당시 여경 비율 1.9%(약 1,800명)를 2002년까지 4%(약 3,600명)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여경채용 확대모집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3년부터 매년 5명씩 모집하던 여자경찰대학생을 입학정원

10%인 12명으로 확대모집, 2000년부터 간부후보생 모집에도 정원의 10%인 5명씩 여자 간부후보생을 모집, 학사경장 20명씩과 일반 여경 576명을 채용하였으며, 여경인력을 교통정리, 교통수사, 청소년, 보안, 경호, 순찰차 근무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찰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1996년부터 여성공무원에 대한 채용목표제가 실시되었고, 여성인력을 채용하는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전문가, 학교행정가로서의 여성인력의 활용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예컨대 정부출연연구소의 여성연구원의 비율은 8.5%에 불과하고, 기업체 연구소의 R & D 인력 중 여성비율은 5.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의 여교수 비율은 대학 진학 여학생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도하는 여교수의 비율은 14%대에 계속 머물고 있으며, 여교원의 교장, 교감 관리직 진출비율은 10% 미만이다.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교원의 교장, 교감 관리직 진출 실적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립대 주요행정조직에 여성교수 비율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2001년에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여교수 현황을 평가 자료로 반영하였으며, 2001년 국립대 구조조정평가사업 평가항목에 여성교수비율 도입하였고,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시·도 교육청별 자체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문민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에 여성할당 30%를 정당법에 명문화하였고, 특히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에도 당선권 범위 내에 여성 50%를 보장하고, 광역의회 지역구 할당제 30%를 정치관계법에 명시하였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2000년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여성단체와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양성평등교육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

5.31교육개혁이후 정부가 주도하여 실행하게 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그 동안 분리 운영되던 기술 교과와 가정교과를 통합하여 남녀학생 모두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수하게 됨에 따라, 오랜 동안 성차별적 교육과정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기술과 가정과의 남녀분리 이수 문제는 해소되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발 시 교육내용의 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의 중립성 유지’를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한다.’로 대체하고, 집필된 교과서를 검정하기 위한 검정기준에도 범교과 학습내용에 양성평등교육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 외 교과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진로지도, 생활지도 등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교육활동을 지양하고, 학생의 생물학적 성(sex)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개개인의 적성과 관심, 흥미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사연수자료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학생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서의 양성평등지도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교육부는 여학생의 진로 및 직업의식을 제고를 위해 1998년부터 2개년에 걸쳐 여중생 및 실업계 여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CD-ROM 타이틀 「아로」를 개발하여 전국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보급하고 각급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교장 재량에 의해 택하도록 권고하였다. 노동부는 여성들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 인턴제 활용기업에 여성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1999년 여성부는 여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충심화 학습교재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여학생과 여성과학자를 연결, 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어 격려, 지원하기 위한 「여학생 이공계 유인 지원 프로그램」(WISE)을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여성비율을 오는 2003년까지 10%, 2010년까지 20%씩 확보하도록 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연구기관에는 인턴연구원 확보를 지원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국책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전통적으로 남성적 직업으로 인식되어 여학생에게 입학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경찰대학,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 1998년부터 10%의 여학생 입학할당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경찰대학에 12명, 3군 사관학교에는 총 65명의 여학생이 교육기회를 갖게 되었고, 정원의 40%를 여학생으로 선발하여왔던 한국 철도대학은 1999년부터 여학생 입학할당제를 철폐하여 성별 제한 없이 학업성적에 따라 입학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에는 그 동안 남녀공학 공업계 및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전공학과에 따라 여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거나 입학을 제한하여 모집하여 왔던 관행을 철폐하여 입학을 원하는 여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여성 평생교육기회의 확대, 취약여성에 대한 생산적 복지 체계로의 통합, 여성 정보화 능력의 제고, 국제교류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되었다. 특히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을 통한 양성평등교육의 체계화는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대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4. 인권교육적 견지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의 방향

21세기 남녀평등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교육의 권리

를 선언하고 있다,

교육기회를 남녀는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갖는다.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도록 교과 내용을 개선하고, 지식정보 사회를 맞아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즉 기회에 있어서 성별 차별을 금지하고, 성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제거하며 그로 인해 여성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남녀평등교육이 구태의연한 성교육의 수준을 넘지 못했던 관행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교육을 보편적인 인권교육적 견지에서 재고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사회변혁적인 선언이 내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여성인권적 양성평등교육의 방향을 세 가지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여성인권에 관한 기본 교육

인간은 그 누구도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따라 여성도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의심할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문화는 여성을 여전히 주변화하고 있고 여성들의 상당한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런 점에서 남성과 함께 여성자신의 인권적 의식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러한 텅적 규약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이다. 북경행동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성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모든 차원의 학교교육과정에서 여성의 인권 및 법률적 권리에 관한 교육을 증진하고 가정내에서, 공적 사적 생활에 있어서 남녀평등 및

국내외적 관련 문서에 대한 공공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러한 보편적 기준을 알게 하고 이에 따라 자신을 어떻게 존엄한 세계 시민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계획하도록 하는 것이 여성인권적 관점에서의 참다운 양성평등교육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은 그동안 억울한 처지에 놓여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집중시키다 보니 기회는 확대되었으나 내용은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우리뿐만 아닌 여성 보편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여성인권교육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2) 동등한 기회와 여성의 권한 강화(empowerment)

현재 우리나라 남녀간의 교육기회는 거의 차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과 연계되는 결과적 평등에 있어서는 심각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통합의 문제이고 성차별은 학력차별, 지역차별 등과 더불어 사회적 배제의 한 전형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렇게 볼 때 양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 문화에 근거한 사회적 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져야만 제대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를 거쳐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순환과정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양성평등사회로 지킬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0조와 11조는 교육적 필요성과 고용 및 복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 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 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 (나)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 (다)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 (라) 장학금 기타 연구 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마)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바)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 (사)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아)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제 11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 (나)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 (다)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의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 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 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나)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 급부를 포함하는 출산 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다)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본 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폐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양성평등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만의 일이 아니고 적어도 노동부와 사회복지부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하는 범부처간 협동 과제인 것이다. 정부부처간 협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도 여성운동과 타부문

과의 결합과 연대가 사회적 취약층의 권한강화를 위해 요구된다.

(3) 여성인권 침해 예방교육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나 여성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교육 자료는 대부분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에 관한 것들이다. 이것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노출된 폭력이 무자비하게 특히 약한 여성에게 행사되기 때문에 성폭력의 희생자들의 피해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성적 범죄의 실상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예방교육을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시해야 한다.(김정연, 2003) 특히 여성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성인 남성들에 의한 성범죄는 한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사실 성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그간의 교육은 몸에 관한 일반 상식 수준의 성교육으로 사회적 차별에 의한 양성평등교육의 성격을 담고 있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교육은 아주 절실한 양성평등교육의 주제이다.

유엔에서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든 아동은 성적 행위로부터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책임질 것을 명기하고 있다.

제 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동시에 이러한 가치를 담고 있는 아동에 대한 인권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회원국들이 존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 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유엔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신전;
-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아동들을 상흔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양성평등교육은 단순히 교육과정상에 반영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교사재교육, 부모교육 및 지역사회교육 등 다차원적인 평생교육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야기되는 여아들의 조기할례 및 여아강간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5. 양성평등교육정책의 향후 과제

한국 사회의 변화 속도를 생각할 때 여성의 사회참여와 발언권은 기대 이상으로 높다. 하지만 그것은 수치적인 것일 뿐이지 실제로 영향력은 아직도 미미하다. 양성평등교육은 단순히 교육적 원리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결실인 사회적 공평성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정책적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여성 정치참여의 결과를 보여주는 국회의원의 수나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수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보다 낮다. 그나마 비례대표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원의 수가 5.2% 정도 있는 것이지만 순수 지역구 의원은 29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성의 정책집행에의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과 역량강화(empowerment)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남성중심의 권력구조이다. 이것은 중앙부처 장관이나 위원회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여성장관은 문화, 환경, 여성부 정도를 책임지고 국방, 경제, 정보통신 등 기간 부문은 모두 남성이 맡는다. 여성도 할 수 있고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한 여성들은 주류 밖에 밀려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여성부도 독립하여 여성에 대한 정책집행이 책임성을 지닌다고는 하나 여성부는 집행부서가 아니고 조정 부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집행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여성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결국 여성부 역시 남성적 시각에서 여자들에게 준 또 하나의 시혜적 부서로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운명이 바뀔지도 모르는 늘 가변적인 하위부처일 뿐이다.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강력하게 견인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총괄, 조정, 집행 부서로서 여성부가 제대로 서야 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이전의

여성부만큼도 여성의 권익강화를 위해서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육 및 가족지원 사업에만 치중하다보니 결국 여성부의 역사적 인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여성인권에 대한 신장을 국제적 수준에 맞춰 이룩하여야 한다. 이제 국적법도 개정되었고 근로기준법도 OECD기준에 맞게 개정되었으므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그럼으로써 여성인권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실 한국 여성 및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다. 앞으로 한국내에서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형제애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진정한 민주인권국가로의 실현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소위 결혼이민자로 들어와서 농촌사회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 여성들의 문제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그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공통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넷째, 여전히 한국의 여성NGO의 역할은 시민사회로 성숙시키는 데 중요하다. 여전히 권력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구조를 띠고 있고 여전히 여성은 주변 화되어 있다. 이것을 인간의 존엄성에 기인한 모두를 위한 평등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성단체 뿐 아니라 미디어, 학교, 환경운동, 평화, 인권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운동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것은 여성평생교육의 핵심주제이기도 하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평생교육이 주로 취미교육에 국한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하여 생애교육과 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녀평등 인권의식은 전 사회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정, 학교, 직장, 교회, 각종 공공 기관, 사회복지기관, 교도기관 등 전 영역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과 학교는 조기 성사회화에 매우 중요하다.(Acker, 1994) 이를 위한 교육과정 네트워크가 절실히 요청된다. 교사재교육에서부터 다양한 현대의 양성평등교육 자료의 개발은 이의 활성화를 필

요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여성정책은 매우 선진적이나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진적인 정책이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운동이고 여성인권교육운동이다. 특히 양성평등교육은 우리 안으로만 가두어놓고 자족하기 보다는 아시아를 비롯한 주변의 여성 침해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늘려 주변 국가들과의 인도적 연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위주의 양성평등교육을 인권, 평화, 생태 등 다양한 관련 주제와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강순원(2001a),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정책방안』,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실 연구과제
- (2001b),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연구』, 대통령 자문 기구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 김선옥(2000), “세계화와 한국여성정책”, 『동아시아의 근대성/세계화와 여성』, 이화여대 여성연구소
- 김양희 외(2000),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0 연구보고서 250-11
- 김엘립(2000), 「여성의 인권과 차별문제」, 『21세기의 인권 2』, 한길사, 641-673쪽
- 김엘립(2001), “여성인권의 보장”,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심포지엄
- 김재인(2002), 『국민의 정부, 여성정책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연(2003), 「한국의 양성평등사회 구현과 여성정책」, 『한국과 일본의 양성평등교육』,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세미나
- 박현주, 신명철(2007), 『여성, 평화와 인권을 외치다』, 낮은 산

- 심미옥(1994), 「성역할 사회화에 대한 교육사회학적 고찰」 『한국교육 2』, 한울, 139-154쪽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국(1999), 『양성평등 세상을 열어가는 교육자료모음집』
- 정현백(2003),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
- 정희진(2005),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 Acker, Sandra(1994), *Gendered Education*,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Kang, Soon-Won(2002), "Democracy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South Korea", *Comparative Education*, Vol.38, No.3, pp. 315-325
- Pearson, Vida(1991), *Women & Power*, Sheffield: Pavic Publications

[요약]

본 논문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이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억압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의 맥락에서 양성평등교육의 대안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한국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남성 중심의 정책을 주류로 하여 여성을 소외시키는 권위주의적 형태를 양성평등교육의 성취를 통하여 극복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여성지위의 놀라운 신장과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엄청난 여성 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성평등교육은 성차별과 성희롱을 예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은 남녀를 포괄하는 모두를 위한 인간해방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럴 때에만 양성평등교육은 양육, 교육, 고용 등을 통합한 인권교육의 맥락에서 재고될 수 있음을 배경선언이나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등은 밝히고 있다.

주제어 :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ABSTRACT]

Achievement and Limitations of Gender-Equality Education in Korea in the light of Human Rights Education

Kang, Soon-Won (Hanshin University)

This paper is focused on analyzing how the sexual discriminative society oppress the fundamental freedom and rights of human being, and giving the alternative tasks of gender-equality education in terms of human rights education. Korean has achieved gender-equality education by overcoming the former authoritarian style alienating women from the mainstream, men-oriented policy. In spite of such a tremendous enhancement in women's status in the society and engagement in the policy making decision, gender-equal education is still stick to the preventing education level against sexual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Therefore. It should be changed into the education for human emancipation for all, which might integrate nurture, education, employment and social involvement in the context of universal human rights education reconsidered through Beijing Declaration or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rights against the exploitation of women.

key words : gender-equality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연구 논문]

시흥 관내 초·중학교의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활성화 방안

경혜영 | 경기도 은행중학교 교장(sucksmom@hanmail.net)

I. 서론

경기도 시흥시는 지리적으로 북으로 인천광역시, 남으로 안산시와 접하고, 아산만을 끼고 평택시가 인접되어 서해안 개발시대의 중요한 몫을 가지는 신흥 도시적 성격이 강한 곳이다. 시흥시는 해양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오이도로부터 대부도를 잇는 거대한 시화 방조제의 시화공단이 조성되어 우리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시화공단은 안산시의 반월공단과 함께 1990년대 이후 공장 노동자들의 유입이 많아 값싼 외국 근로자들의 생활 터전이 되는 곳이기도 하였다. 특히 시흥시 정왕지구의 시화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에 따라 자연스럽게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형성되어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민족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대표적 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시흥교육에 있어

당면되고 있는 문제는 세계인이 공존하고 함께하는 사회에 따른 다문화 교육 환경¹⁾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인권 문제와 공동 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보존 등의 환경 문제 등이다. 더욱이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23명의 한국 기독교 선교인 납치사건으로 종교 문제와 타 문화 이해교육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하였고 따라서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시흥지역에서도 더욱 증대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이해교육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인권단체,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활성화 되었다.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이들 기관과 개인에 의해 연구되고 실천 사례로 발표된 주제들은 국제이해교육과정 개발²⁾,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³⁾, 교수-학습 방법⁴⁾,

1) 2006년도에 시화초등학교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언어 학습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의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지정 정책 연구학교 운영을 하였다.

2)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2003.

전홍수. 고등학교 국제이해교육 목표 설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2

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1998. 12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연구원. 중학교 국제이해교육. 더불어 사는 세상 배우기. 2001. 12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연구원. 우리는 지구촌 시민. 축구로 배우는 국제이해교육. 교사용 지도서. 2004. 11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연구원. 맛있는 국제이해교육. 2007. 3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지구촌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초·중등학교 교육용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연구. 2001

4) 김다원. 국제이해교육 시간의 세계화 수업. 92~103쪽. 국제이해교육. 2003 봄·여름 통권 10호.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사례발표⁵⁾, 활동 방법⁶⁾ 등이 중심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는 자료들은 현장지도에 필요한 자료들로서 효용성과 가치성에 있어서도 탁월한 내용들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료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사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반은 학교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고 있는 교실 수업 현장이다. 특히 국제이해교육은 자료와 교수-학습방법의 다양성 및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대비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아주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시흥지역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국제이해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을 1차로 분석하고 2차로 국제이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 문제점을 진단하여 종합적으로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 시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시흥관내 초·중학교 「국제이해교육」 편성·운영 현황

시흥교육청은 경기도내 25개 시·군 교육청 중 가장 늦게 설립된 교육청이다. 2004년 3월 에 설립된 교육청으로 그전에는 안산 교육청에 소속되어 안산·시흥교육청의 명칭으로 시흥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시흥교육청은 4년차의 짧은 연혁을 가진 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교사들을 위한 세계유산교육 지침서. 2007

5)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 사회를 위한 협력. 2007. 7
조은경. 다문화 가정교육에 관하여 -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p
384-386. 7차 국제이해교육 학술대회. 2006. 10. 14 ~ 15

6) 교실 수업, 체험 학습,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활동

육청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이룬 성과는 대단하다. 2006년에는 경기도교육청 혁신 경진대회에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25개 시·군교육청 평가에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국제이해교육에 있어서도 시흥교육청은 2006년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시흥인 육성」을, 2007년에는 「꿈을 펼쳐가는 조화로운 시흥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여 교육 활동을 하여 왔고 또한 시흥교육청 자체적으로 중국 제남시 괴음구 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어 관내 3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각각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여⁷⁾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시흥교육청에는 34개 초등학교와 17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가 소속되어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흥 교육의 특징은 시흥시가 경기도내 가장 늦게 출발한 중소도시이며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많고 거주지도 행정타운 중심의 발전이 아닌, 개발지역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발전하고 있다.⁸⁾ 따라서 시흥 관내의 초, 중, 고등학교들은 학교별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단위 학교는 지역적 특성을 내포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시흥교육청이 경기교육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함께 사는 학습이 강조되어 국제이해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7) 2006년도에는 웃터골 초등학교, 시흥중학교, 장곡중학교, 정왕고등학교가 2007년에는 장형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시흥은행중학교가 각각 자매결연을 맺었다.

8) 예전부터 도시가 형성된 소래지구, 장곡지구와 공단이 형성된 정왕지구, 신개발지인 장현지구, 능곡지구, 목감지구 등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으로 학교별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

시흥교육청 산하의 각급 학교들의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국제이해교육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에 시흥교육청 산하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의 주무 책임자인 교무부장과 관내 중학교 교사 43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에 국제이해교육 편성과 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대상, 내용 및 방법

대상	조사 내용	인원	방법	문항	시기
초·중학교 교무부장 및 관내 중학교 교사	국제이해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의 필요성	34명	설문지	9문항 (미편성교 2문항)	2007. 9. 27 ~ 10. 2 각 학교에 경기도중등 국제이해교 육연구회장 명의의 공 문 발송
	편성 영역, 편성 학년, 시간 배당 담당 교사 과목 및 활용 자료 교육과정 편성외의 국제이해교육 활동	17명	설문지	9문항 (미편성교 2문항)	
	국제이해교육의 기대효과 ASP협동학교, CCAP 학교 국제이해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법(교사용) 국제이해교육 관련 연수 등(교사용)	43명 (교사)	설문지	13문항	
계		94명			

1. 초등학교 설문 분석

관내 34개⁹⁾ 초등학교 교무부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 9) 김바위초등학교, 계수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 군자초등학교, 금모래초등학교, 냉정초등학교, 대야초등학교, 군자초등학교, 도일초등학교, 도창초등학교, 목감초등학교, 서촌초등학교, 서해초등학교, 소래초등학교, 송운초등학교, 시화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시흥도원초등학교, 시흥매화초등학교, 시흥신일초등학교, 시흥월곶초등학교, 시흥은행중학교, 시흥장현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연성초등학교, 옥터초등학교, 웃터골초등학교, 월포초등학교, 은계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정왕초등학교, 진말초등학교, 포리초등학교, 하중초등학교, 함현초등학교

100% 회수되어 분석한 다음과 같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은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가. 교육과정 편성 및 편성 배경

34개 관내 초등학교 중 국제이해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창의적 재량활동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13개교(38.24%)로 편성되지 않은 학교(21개교, 61.76%)와 비교해 보면 전체의 1/3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아울러 편성된 13개 학교¹⁰⁾를 대상으로 국제이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한 배경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학교들이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편성하였다고 응답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 일치하는 교육과정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국제이해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국제이해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여부		
편성됨	편성되지 않음	계
13개교(38.24%)	21개교(61.76%)	34개교(100%)

나. 편성 영역, 편성 학년, 시간 배당

국제이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된 13개 학교들은 모두 범 교과학습 시간에 운영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학교 중에서도 군서초등학교는 국제이해교육을 교과교육과정에서 심화 학습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시흥장현초등학교는 6학년 사회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하고 있고 금모래초등학교도 도덕·사회교과와 연

등 34개교

10) 검바위초등학교, 계수초등학교, 냉정초등학교, 도창초등학교, 서해초등학교, 시화초등학교, 시흥은행초등학교, 옥터초등학교, 월곶초등학교, 월포초등학교, 진말초등학교, 포리초등학교, 하중초등학교 등 13개교

계하여 지도하고 있다.

<표 3> 국제이해교육의 편성 영역

국제이해교육이 편성된 영역		
범 교과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일반교과와의 연계
13개교(100%)	.	3개교(8.82%)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의 편성은 3, 4, 5, 6학년의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이 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검바위초등학교는 2학년에, 서해초등학교는 6학년 한 학년에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편성 학년에 대한 조사는 1개교당 학년이 중복되어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 수치가 응답한 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마다 편성된 결과¹¹⁾는 <표 4>와 같다.

<표 4> 편성 학년

국제이해교육이 편성된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5개교	6개교	9개교	9개교	11개교	12개교	12개교 (52개 학년)

또한 범 교과학습의 시간 배당도 연 6시간~10시간으로 편성한 학교가 많고 최하 배당 시간은 4시간이었다.

11) 도창초등학교, 시화초등학교, 진말초등학교, 포리초등학교는 1학년~6학년에, 계수초등학교, 냉정초등학교, 시흥은행초등학교, 하중초등학교는 3학년~6학년에, 월곶초등학교, 월포초등학교는 5학년~6학년에, 편성되었다.

<표 5> 교육과정 연 편성 시간

교육과정 연 편성 시간			
1시간~5시간	6시간~10시간	10시간 이상	계
2개교(15.38%)	8개교(61.54%)	3개교(23.08%)	13개교

다. 담당 교사 과목 및 활용 자료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담임교사가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특성을 담임교사가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어교사가 담당한 학교도 3개교¹²⁾나 되었고 응답한 학교 중에는 교과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을 국제이해교육으로 편성한 학교도 있었다.¹³⁾

<표 6> 국제이해교육 담당 교과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한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기/가	영어	컴퓨터	한문	기타
	1개교	1개교							3개교			9개교(14교과)

또한 국제이해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교재도 학교 교사들의 자체 제작한 교재, 인터넷 자료와 경기도교육정보원에서 개발한 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왕초등학교는 인터넷 자료, 에듀넷 탑재 자료,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개발 자료, 기타 자료들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12) 계수초등학교, 시흥은행초등학교, 포리초등학교 등 3개교

13) 포리초등학교는 교과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면서 영어 전담교사가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스웨덴과 프로젝트 교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표 7> 국제이해교육에 활용되는 교재

국제이해교육에 활용되는 교재					
인터넷 자료	학교 자체 제작 자료	에듀넷 탑재 자료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개발 자료	기타	계
3개교	4개교	1개교	3개교	2개교	12개교(13자료)

라. 교육과정 편성의 국제이해교육 활동

국제이해교육이 창의적 재량활동 이외의 어떤 영역에서 국제이해교육 활동을 실시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포리초등학교는 교과 특성화학교를 운영하면서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또 검바위초등학교는 국제이해교육과정을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면서도 별도로 학년 또는 학급 특색으로 자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때 지도교사는 국제이해교육에 관심이 많고 소신이 있는 교사가 지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이해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¹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시흥 관내의 초등학교 가운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A S P 협동학교, C C A P 활동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마. 국제이해교육의 기대 효과

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타 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더불어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기대가 무척 높게 나타났다.

14) 웃터골 초등학교, 시흥 초등학교, 장현초등학교는 시흥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제남시구 교육청 산하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각각 활동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군자초등학교와 장곡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길림성 소학교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2. 중학교 설문 분석

관내 17개 중학교¹⁵⁾ 교무부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지는 100% 회수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은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가. 교육과정 편성 및 편성 배경

17개 관내 중학교 중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5개교로(29.41%) 편성되지 않은 학교 (12개교, 70.59%)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편성된 5개 학교¹⁶⁾를 대상으로 국제이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한 배경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학교들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편성하였다고 응답한 한편,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시화중학교) 또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자매 결연교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질서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곡중학교)라고 하였다.

<표 8> 국제이해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국제이해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었는지의 여부		
편성됨	편성되지 않음	계
5개교 (29.41%)	12개교 (70.59%)	17개교 (100%)

15) 군서중학교, 군자중학교, 논곡중학교, 대흥중학교, 서해중학교, 소래중학교, 송운중학교, 시화중학교, 시흥중학교, 시흥은행중학교, 신천중학교, 연성중학교, 월곶중학교, 장곡중학교, 정왕중학교, 함현중학교, 한국글로벌중학교 등 17개교.

16) 군서중학교, 논곡중학교, 시흥은행중학교, 연성중학교, 장곡중학교 등 5개교

나. 편성 영역, 편성 학년, 시간 배당

국제이해교육은 5개 학교 모두 범 교과학습 시간에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학년¹⁷⁾은 학교 실정에 따라 전 학년에 배정한 학교도 있다. 편성 학년에 대한 조사는 1개교당 학년이 중복되어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가 응답한 학교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학년마다 편성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9> 국제이해교육의 편성 영역

국제이해교육이 편성된 영역		
범 교과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일반교과와의 연계
5개교 (100%)	.	.

<표 10> 편성 학년

국제이해교육이 편성된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3개교	2개교	4개교	5개교 (9개 학년)

또한 시간 배당은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의 축소 운영에 따라 1시간~5시간이 많고 제일 적은 시간은 4시간을 배정한 시흥은행중학교였다.

<표 11> 교육과정 연 편성 시간

교육과정 연 편성 시간			
1시간 ~ 5시간	6시간 ~ 10시간	10시간 이상	계
3개교(60%)	1개교(20%)	1개교(20%)	5개교

17) 장곡중학교는 1학년~3학년에, 논곡중학교는 1, 2학년에, 연성중학교는 1, 3학년에, 군서중학교와 시흥은행중학교는 3학년에 각각 배정하였다.

다. 담당 교사 과목 및 활용 자료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교과목 교사들이 있어 자신의 전공 교과 외에 범 교과학습을 지도하는 교사가 많다.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을 포함한 창의적 재량활동은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기도 하다. 국제이해교육이 교육과정에 편성된 5개의 학교 중에서도 논곡중학교와 시흥은행중학교, 연성중학교¹⁸⁾는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 교사를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장곡중학교는 학생들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또 군서중학교는 외국어 구사 능력과 국제적 문화 습득에 근접한 영어교사들이 국제이해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국제이해교육 담당 교과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한 교과												
국 어	도 덕	사 회	수 학	과 학	체 육	음 악	미 술	기/ 가	영 어	컴 퓨 터	한 문	기 타
1	2	1	1	·	1	1	1	1	3	·	1	1개교 (담임교사)
												5개교 (14개 교과)

또한 국제이해교육에 활용된 교재도 학교 교사들의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국제이해교육에 사용되는 교재

국제이해교육에 사용되는 교재					
인터넷 자료	학교 자체 제작 자료	에듀넷 탐재 자료	경기도교육정보 연구원 개발 자료	기타	계
·	4	1	1	·	5개교(6개의 자료)

18) 논곡중학교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영어교사가 시흥은행중학교는 2008년도에 처음 국제이해교육이 3학년에서 시행되기에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한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담당할 예정이다.

라. 교육과정 편성외의 국제이해교육 활동

교육과정 편성 이외의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했는가의 설문조사에는 아침 영어 방송 및 원어민 교사를 활용¹⁹⁾하여 타 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으며,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²⁰⁾도 있다. 국제이해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중 함현중학교는 필요할 때마다 계기교육 차원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신천중학교는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및 교과와 연계한 시간에 세계문화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그밖에 대흥중학교는 일본과 소래중학교는 중국과 시화중학교는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국제이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흥 관내의 중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시흥은행중학교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ASP 협동학교로 활동²¹⁾하고 있다.

마. 국제이해교육의 기대 효과

중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은 초등학교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미래사회에 대비한 기초 능력 배양 및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3. 시흥 관내 중학교 교사 대상 설문 분석

국제이해교육이 창의적 재량활동 등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19) 논곡중학교, 시흥은행중학교 등 2개교

20) 시흥은행중학교, 시흥중학교, 장곡중학교는 시흥교육청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제남시 괴음구교육청 산하의 중학교와 각각 자매결연을 맺어 활동하고 있다.

21)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저개발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006년 몽골 제31번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2차에 걸친 교사, 학생 교류를 하였다.

시흥 관내 중학교 교사 4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국제이해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의 필요성

17개 관내 중학교 중 국제이해교육이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지 않은 12개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1개교당 5부씩 배부하여 무작위로 60명을 설문조사하였으나 43명만 응답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결과 분석하였다. 국제이해교육이 학교교육과정(창의적 재량 활동 등)에 편성·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명(72.09%)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명(2.33%)만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있어 일선 학교의 교사들도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국제이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23명의 교사만이 응답(53.49%)하였다. 그중 8명의 교사가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서(8명), 국제사회에 대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3명),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4명) 등의 이유로 국제이해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표 14> 국제이해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국제이해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편성이 필요함	편성될 필요 없음	잘 모르겠다.	계
31명 (72.09%)	11명 (25.58%)	1명 (2.33%)	43명 (100%)

나. 편성 영역, 편성 학년, 시간 배당

또한 국제이해교육이 어느 영역에 편성되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의 질문에 31명(72.09%)의 교사가 창의적 재량활동·범교과학습에 편성하는 것(72.09%)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그밖에 일반교과와 연계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9명(20.93%)이었다.

<표 15> 국제이해교육의 편성 영역

국제이해교육이 편성 희망 교육과정				
범 교과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일반교과 학습	기타	계
31명(72.09%)	2명(4.65%)	9명(20.93%)	1명(2.33%)	43명(100%)

또 범 교과학습에 배정한다면 편성되어야 할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주당 1시간씩 연간 약 30시간이상의 시간(74.42%)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표 16> 국제이해교육의 편성 시간

범 교과학습 국제이해교육 연 배정 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10시간	24시간	30시간	계
3명 (6.98%)	2명 (4.65%)	1명 (2.33%)	4명 (9.30%)	1명 (2.33%)	32명 (74.42%)	43명 (100%)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어느 발달 수준에 편성해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로 1학년과 2학년에 편성하는 것(31명 72.09%)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17> 국제이해교육 편성 희망 학년

국제이해교육이 편성 희망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전 학년	계
16명(37.21%)	15명(34.88%)	9명(20.93%)	3명(6.98%)	43명(100%)

다. 지도 교사 과목 및 활용 자료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담임교사가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의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결과였는데, 교사들의 설문조사에서는 특정교과의 교과목 교사들이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교과 교사(도덕교과 교사 포함)들이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²²⁾이 전체 응답자의 81.40%(35명)나 되었다. 그밖에 영어교사(2명, 4.65%), 제2외국어 교과 교사(1명, 2.32%)가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특히 전 교과 교사가 지도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5명(11.63%)이나 되었다.

<표 18> 국제이해교육 담당 교과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한 교과													
국 어	도덕	사회 (국사 포함)	수 학	과 학	체 육	음 악	미 술	기/ 가	영어	컴 퓨 터	한 문	제2 외국어	전교과
	2명 (4.65%)	33명 (76.74%)							2명 (4.65%)			1명 (2.33%)	5명 (11.63%)
													43명 (100%)

또한 국제이해교육에 교재로 활용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진 교재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개발한 자료로 지도하겠다는 교사들이 많았다.(26명, 60.47%)

<표 19> 국제이해교육에 사용되는 교재

국제이해교육에 사용되는 교재					
인터넷 자료 (개인제작)	학교 자체 제작 자료	에듀넷 탐재 자료	경기도교육 정보연구원 개발 자료	기타	계
5명(11.63%)	5명(11.63%)	2명(4.65%)	26명(60.47%)	5명(11.63%)	43명(100%)

22) 서울 신목중학교 교사 김권환도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한국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에서 국제이해교육과 관계 깊은 교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사회(65.8%), 외국어(21.7%), 도덕(7.1%)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국제이해교육. 2003 봄·여름 통권 10호 204쪽

라. 국제이해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국제이해교육이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지도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도가 될 것인가의 질문에 43명 중 27명이 응답(62.79%)을 하였다. 인터넷 등의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한다는 응답이 6명 (22.22%),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사의 지도 및 NIE 교육으로, 또 토론수업으로 지도한다는 응답이 각 4명 (각 14.82%)이었다. 그밖에 멀티미디어 수업, 사회교과 수업에 흡수 지도가 각 3명(각 11.11%), 전문 강사 초빙 지도, 자율화 수업, 문화 탐방 학습을 추진하겠다는 응답이 각 1명(각 3.70%)으로 나타났다.

<표 20> 국제이해교육의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 (단위 %)

국제이해교육의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인터넷 자료 개발	전문성 연수	NIE 교육	토론 수업	멀티미디어 활용	사회 교과 연계	전문 강사 초빙	자율화 수업	문화 탐방 수업	계
6명 (22.22)	4명 (14.82)	4명 (14.82)	4명 (14.82)	3명 (11.11)	3명 (11.11)	1명 (3.70)	1명 (3.70)	1명 (3.70)	27명 (100%)

마. 국제이해교육 관련 연수 활동

전체 응답자의 6.98%인 3명만이 국제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것도 교육학 관련 강의를 통해서 받은 교사, 경기도중등국제이해교육연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받은 교사, 그리고 ASP 협동학교 활동을 하면서 받은 교사가 각 1명이었다. 연수를 받은 교사나 받지 않은 교사들 중 연수가 국제이해교육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7명(16.28%)이었다. 또한 국제이해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된다면 스스로가 지도할 것인가의 질문에는 6명(13.95%)의 교사만이 지도할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명(4.65%), 나머지 35명(81.40%)은 지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III. 실태 분석 결과 및 문제점

이상의 실태를 분석하여 본 결과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편성 배경

국제이해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교사 모두 국제화 사회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이해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의 교사들 중 설문조사에 응한 72.09%의 교사들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다문화 사회로의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속에 편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이해교육이 창의적 재량활동의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편성·운영되지 못한 학교가 많은 실정이다.(초등학교 64.71%, 중학교 70.59%). 특히 시흥지역은 서해안을 통해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과 다문화 사회의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와 시흥교육청의 의지 등이 타 지역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학교 현장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이 편성·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의 편성·운영 비율이 낮은 것(초등학교 35.29%, 중학교 29.41%)도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2. 편성 영역, 편성 학년, 시간 배당

초등학교, 중학교 및 중학교 교사들은 국제이해교육이 창의적 재량활동 범 교과학습에 편성되기를 희망(초·중학교 100%, 교사 72.09%)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에 일반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하고 있는 학교(3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도 국제이해교육이 일반교과 학습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답변(9명, 20.93%)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간 수업시수 배당에 대해 평균 4시간~12시간을 교육과정에 편성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주당 1시간의 배정을 희망(30시간, 74.42%)하고 있다. 이는 국제이해교육의 활성화 입장에서 환영하는 바이나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수업시수의 축소가 확대되어가는 오늘날 축소되는 영역이 재량활동 분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국제이해교육의 범 교과학습에 편성·운영되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응답한 교사들의 대부분이 범 교과학습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며 또 소속교의 범 교과학습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교사가 대부분이라는 점²³⁾이다. 즉, 43명의 응답자 가운데 범 교과학습을 기술한 교사는 12명(27.91%)뿐이고 그나마 학년별로 기술한 교사는 1명(2.33%)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학년 말에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교사 스스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체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단위 학교에서 국제이해교육을 교육과정 안에 편성·운영할 때 편성 영역이나 실시 방안 등을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²⁴⁾을 참고로 한다면 국제이해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3. 담당 교사 과목 및 활용 자료, 국제이해교육 관련 연수 활동

국제이해교육은 초등학교인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대부분의 학교가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다. 활용되는 교재도 대부분 학교 자체 제작의 교재를 활

23) 설문지 5번 항목 “귀교에 편성된 범 교과학습을 있는 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의 설문조사 결과이다.

24)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지구촌 시대의 국제이해」지구촌 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 초·중등학생 교육용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연구」.국제이해교육학회 홈페이지 탑재. 2001. 6쪽~9쪽. 15쪽~19쪽.

용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개발한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개발한 자료²⁵⁾를 살펴보면 주로 교과 교육 자료가 대부분이다. 초등학교는 자료 개발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고 중, 고등학교는 범 교과학습 영역으로 창의력 신장, 논술, 진로, 직업에 관한 자료가 개발되어 탑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한다고 하였을 때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개발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한편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받은 교사는 극소수(3명)이며 이들은 해당 학교에서도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제이해교육은 타 범 교과학습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들에 의해 지도되고 있기에 담당교사들은 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특히 그중 국제이해교육은 교과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한 교사(사회·도덕, 영어교과 교사)들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86.05%)이었다.

이는 교사들 자체가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개념 부족과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육과정 편성의 국제이해교육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국제이해교육은 유사 교과와 연계한 활동, 학년·학년 특색으로 자체 운영, 원어민 교사 활용을 통한 타 문화이해 수업 및 국제교류를 통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교나 편성되지 않은 학교들 중에는 외국과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 이들 학교들은 시흥교육

25) <http://kerinet.re.kr>(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탑재된 자료는 수준별 교육과정 자료가 많고 교수-학습도움센터에 제량(특별)활동 자료로 김포 유현초등학교가 연구학교 운영한 것만 탑재되어 있다.

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학교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들이 제일 많고(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교과 특성화 학교 운영(1개교) 및 자체적으로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2개교)들도 있다. 대상국은 중국, 몽골, 일본, 영국, 스웨덴 등이며 프로젝트 교수-학습방법 교류, 홈스테이 및 학교 방문, 관광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시흥지역의 대다수의 초·중학교들은 국제이해교육이 곧 국제교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영어 등의 언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사회교과 교사들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일반 교과 교사들이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하기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교육과정에 국제이해교육이 편성된다면 자원하여 지도할 수 있겠는가의 질문에 많은 교사들이 부정적인 반응(81.40%)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이해교육은 누구나 가르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교과라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등 유관 기관의 부단한 홍보와 연수 등이 일선 학교에 침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국제이해교육의 기대 효과

초, 중학교에 편성된 국제이해교육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지표인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기초 능력을 배양하고 다문화 사회에 갈등과 편견을 없애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 육성시키려면 다양한 방법²⁶⁾들이 구안되어야

26) 시흥은행중학교는 유네스코협동학교 활동으로 저개발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몽골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업인 북한의 교과서 용지 보내기 운동 참여 및 시흥교육청 자매결연 도시인 제남시 괴음구 교육청 산하 제12번 중학교와 교류활동을 하며 또한 수원 미군 1-7 방공포대와 자매결연을 통해 1가정 1미군 결연활동 및 영어자원봉사활동, 미8군 사령부의 Good neighbor Program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6. 국제이해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62.79%(27명)의 교사만 인터넷 자료 활용, NIE 수업, 토론 수업, 문화탐방수업 등에 참여할 희망을 나타냈고 일부는 전문적인 연수를 받은 교사가 지도해야 하며 전문 강사도 초빙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였다. 이에 연수를 받은 교사나 받지 않은 교사들도 연수를 받으면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기에 교사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IV. 국제이해교육의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의 대상이 시흥 관내의 초, 중학교와 중학교 교사라는 제한점으로 학교교육과정에 국제이해교육의 편성·운영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와 결과가 다르게 분석될 수 있겠으나 신흥 개발지로서의 시흥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교육적, 사회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를 토대로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등에서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국제이해교육에 대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연수가 있어야 한다.

가. 시흥 관내의 초·중학교와 교사들은 국제이해교육이 학교교육현장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여기나 대부분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개념과 이해력이 낮고 또 특정한 교사들이 지도해야 하는 어려운 교과목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보다 많은 교사들에게 국제이해교육을 홍보하고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원 대상의 자격연수(교장, 교감, 1정, 사서교사 등)에 “국제이해교육”이 필수 교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유

네스코한국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2007년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 연수에 국제이해교육이 교과목으로 편성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나. ASP협동학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학교장, 담당교사 연수를 일선학교 교장, 교육과정 편성 담당 부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가급적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편성·운영되는 새 교육과정에는 국제이해교육의 내용이 보다 많은 교과에 삽입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제이해교육의 발전적 측면에서 역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시·군교육청에 국제이해교육 담당 부서 설치 및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천적인 국제이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 국제이해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있어 ASP협동학교 활동을 하거나 CCAP 활동 및 연구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면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라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수 및 학술대회 시 안내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발송하면 보다 많은 교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 경기도교육청에는 교육정책과 안에 국제교류협력과가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된 업무는 영어교육(영어수업실기대회, 원어민 관리 등)에 관한 일을 맡고 있을 뿐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할 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실정이며 단지 중등교육과에 교과교육연구회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지에서 공문이 오면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또한 장학사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한계가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교육부 인정의 교과서를 개발²⁷⁾하여 범 교과학습에 활용

27) 2006년도에 대한교과서에서는 고등학교용 “국제이해교육” 교과서를 발간하여 교육부의 인정도서로 되었다.

토록 하면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아·태국제이해교육원에서 발간하는 국제이해교육 자료는 다양하며 편제가 훌륭한 내용들이 많다. 그러나 국제이해교육의 교육과정상 시간 배정이 적은 일선 학교에서는 총론적 성격의 교과서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태국제이해교육원에서 개발된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을 모델로 총론적 교과서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홍보 및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기도중등국제이해교육연구회²⁸⁾ 등 교원 중심의 교과교육연구회²⁹⁾가 전국적으로 많이 조직되어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체제가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유네스코 협동학교의 프로젝트 공모는 그 대상이 협동학교와 개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국제이해교육을 공동연구하는 교과교육연구회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응모하게 한다면 다양하고도 질 높은 자료들이 개발 될 것이다.

다섯 째, 국제이해교육에 마인드를 가진 교원을 대상으로 심화과정, 전문과정의 연수 체계를 확립하여 단계별로 전문가로 육성

28) 경기도중등국제이해교육연구회는 경기도교육청의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로 2006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최우수교과교육연구회로 선정되었다. 하계·동계세미나, 포럼, 워크숍, 세계문화유산 및 다문화자료 개발, 러시아 연해주 극동국립대학교 한국학 학생 초청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9) 교과교육연구회로 경기도교육청인 경우 전국단위, 도교육청 단위, 지역 교육청 단위, 학교·지역간으로 분류되며 경기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등록된 연구회로 초등학교에는 국제이해교육연구회(박정환, 13명), 경기도초등국제이해교육연구회(윤남희, 63명), 경기도국제사회문화연구회(이철기, 50명), 국제사회문화연구회(박귀선, 10명), 경기도초등국제교육과정 비교연구회(송문용, 37명)가 있고 중등에는 경기도중등국제이해교육연구회(경혜영, 90명), 수원국제이해교육연구회(오성애, 7명) 등이 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 국제협력지원단에 전국단위의 국제교육연구회와 경기도 국제교육연구회, 경기비교교육연구회, 초등국제이해교육연구 모임 등이 소속되어 있어 연 1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하여 우수 교원들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국제이해교육이 될 것이다.

여섯 째, 교사들은 국제이해교육을 내용적인 면에서 외국과의 국제교류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환경, 인권, 평화, 전쟁, 세계유산 등 전 세계적인 관심 사항이 모두 국제이해교육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 -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 동아리 활동, 문화재청·인권단체·환경단체 활동,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가입 활동, 관련 학술대회, ASP협동학교, CCAP활동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 째, “재미있는 국제이해교육”을 위해 전국 단위 및 시·도 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청 단위의 「국제이해교육의 날」 행사를 축제 형식이나 주제가 있는 행사로 개최하여 ASP협동학교 외에 희망하는 일반 학교도 참여하게 하여 “찾아가는 국제이해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양될 것이다.

여덟 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협동학교 등의 프로그램 활동 대상을 고등학생, 교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로 확대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국제이해교육을 접하게 되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자료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홉 째, 「국제이해교육 활성화 방안」을 프로젝트화 하여 교원 대상의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회 및 교사 수업대회, 일반학교 대상 국제이해교육 활동 우수학교 선발 등을 개최하면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

IV. 결론

7차 교육과정의 시작된 지 7년 차인 올해 국제이해교육은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운영, 자료 개발, 국제교류 등 다양한 노력이 관계 기관 및 개인에 의해 부단히 연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변 확대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흥지역의 관내 초·중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사 설문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나름대로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면에 있어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ASP협동학교뿐 만 아니라 일반학교까지 확대하여 관리자, 교육과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학교교육과정에 국제이해교육이 필수교과목 내지 선택교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제이해교육 활성화 방안」을 프로젝트화하여 “재미있는 국제이해교육”, “찾아가는 국제이해교육”이 되도록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 형식의 운영과 초, 중, 고등학생 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대회 등을 개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모색한다.

3. 교사들이 국제이해교육을 쉽게 접근하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총론적 성격의 교과서 개발 등 각종 자료의 개발과 함께 지도 방법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며 국제이해교육에 스스로의 마인드가 형성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강사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국제이해교육연구회 등 교과교육연구회나 교원 동아리 등에도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국제이해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전국적, 지역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경기도교육청(2006). 2006 국제협력 지원·연구단체 연합 워크숍.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과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교수-학습지원센터
- 경기도중등국제이해교육연구회(2007). 세계문화유산 교육 및 다문화 사회에서의 학교교육. 경기도중등국제이해교육연구회 하계 세미나 자료.
- 경기도시흥교육청 홈페이지
- 국가인권위원회(2004).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 용어
- 김권환(2003).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한국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 국제이해교육. 2003 봄·여름 통권 10호.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김다원(2003) 국제이해교육 시간의 세계화 수업. 국제이해교육. 2003 봄·여름 통권 10호.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연구.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
- 시화초등학교(2006). 맞춤형 언어학습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 경기도교육청 지정 정책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 시흥관내 초등학교 홈페이지
- 시흥관내 중학교 홈페이지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연구원(2001). 더불어 사는 세상 배우기. 중학교 국제이해교육.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연구원(2002). 국제이해교육. 2002 가을·겨울 통권 9호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3). 세계시민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연구원(2003). 국제이해교육. 2003 가을

· 겨울 통권 11호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연구원(2004). 우리는 지구촌 시민, 축구로 배우는 국제이해교육.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연구원(2007). 맛있는 국제이해교육.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7). 다문화 사회를 위한 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8).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6). 깡뽕뽕, 세상과 처음 만나는 날. 국제이해교육 2006년 봄·여름 통권 16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6). 바팔라 파에를 선물하고 전통 의상을 입으면 어엿한 성인. 국제이해교육 2006년 가을·겨울 통권 17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7). 바이순 평원에서 평화를 노래하다. 국제이해교육 2007년 봄·여름 통권 18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7).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교사들을 위한 세계유산교육 지침서.

인권연대 교육센터(2006). 교육 희망, 인권이 해답이다. 2006년 겨울 교사 인권강좌 자료집

전홍수(2005). 고등학교 국제이해교육 목표 설정.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은경(2006). 다문화 가정교육에 관하여 -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 7차 국제이해교육 학술 대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2001) 지구촌 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 초·중등학생 교육용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연구. 국제이해교육학회 홈페이지 탑재

ASP 충북지역교사협의회(2006). ASPnet와 CCAP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연구 논문]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관계정립을 위한 연구

김현덕 | 거제대학 교수(hdkim@koje.ac.kr)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가정이 증가하고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지면서 21세기 교육의 주요 화두로 '다문화교육'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 동안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하던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를 할 때 주로 사회계층간의 차이를 보완하는 관점에서의 교육정책의 개발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다가 20세기 말에 접어들며 해외 노동자의 유입이 본격화되고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포함해서 미래의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교육으로 '다문화교육'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란 용어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두된 것으로서 아직 그 개념이 뚜렷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의 국제이해교육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구체적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다. 사실 90년대 문민정부가 시작되며 세계화가 강조되었으며 이것이 정부의 교육 개혁안에 반영되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국제이해교육’(global education, international educ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함께 시행되어 왔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국제이해교육’의 한 분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제이해교육’과 차별되는 개념으로서 서로 고유한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인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선에서 이미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해온 교사들의 혼란을 감소시켜주고, 향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함께 세계적 변화에도 함께 대처해야 하는 현실에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먼저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발생배경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두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 다문화사회인 미국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발전하여 왔으며, 현재의 추세는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은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한국의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발생배경, 발전과정, 향후과제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II.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발생 배경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은 서로 다른 발생 배경을 갖고 있다. 우선 다문화교육은 원래 미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민족간의 갈등 해소와 공존을 위한 교육으로부터 시

작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역사적 배경이 다양한 인종그룹으로 이루어진 유럽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교육이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평화교육이나 문화간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김현덕, 2000).

이러한 다인종 국가들은 소수의 다인종들이 자국으로 이주를 시작해오던 시기에는 우선 이들을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주류화(mainstreaming) 또는 동화(assimilation)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 즉 소수 인종들이 한시라도 빨리 주류사회에 적응하여 살 수 있도록 이들 이주민들에게 자신의 전통문화를 버리고 주류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주류문화에 편입시키려는 정책은 훗날 평등, 정의 및 다양성 인정이라는 민주주의 개념과 위배된다는 점에서 소수집단뿐 아니라 주류 집단 내에서 반론이 제기되면서 다문화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문화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이 인종적, 계층적, 민족적으로 다양화하면서 다양한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목표로 발전되어 왔다. 즉 다문화교육은 이들 다양한 집단간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들의 개성과 독특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평등(equality), 다양성 내의 통합(unity within diversity), 정의(justice for all)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적인 교육의 실천 뿐 아니라 인종, 성, 사회계층간의 차별을 없애려는 교육을 지향하여 왔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특히 사회내 소수집단에 속하는 아동교육에 치중하면서, 소수집단이 자신의 고유문화를 지키고 기존 주류문화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정책의 일환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다문화주의가 비교적 잘 실천되는 나라에서는 모든 다양한 문화가 대부분 수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언어와 문화, 종교 등을 향유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아태국제이해교육원, 2004).

반면 국제이해교육의 발생배경은 세계화와 관련이 깊다.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히 발전한 정보통신과 교통은 세계를 하나의 생활 단위로 묶어가면서 나라와 나라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세계화를 가속화시켰다.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전 세계적인 보편화는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의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이동을 초래하였으며,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화(inter-dependence)를 가져왔다.

이러한 세계의 상호의존 관계가 깊어지면서 종전의 국가나 지역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구촌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인구, 자원, 빈곤, 인권 등의 문제들이 세계적인 문제로 주목받게 되었다. 즉, 세계화로 인해 세계의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의사결정, 활동들이 지구상 멀리 떨어진 개인과 공동체들에게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세계 여러 나라 사람, 자본, 상품 등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문화간 갈등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문화간 상호이해 및 다양한 시각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같이 세계의 상호의존화가 증대되면서 세계이해(global understanding) 혹은 국제이해(international understanding)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세계교육', '국제이해교육'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세계교역이 증가하고, 상호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육의 영역을 넓혀오고 있다.

이같이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배경과 동기로부터 시작하였다. 국제이해교육의 배경은 세계화의 진행에서 찾는다면 다문화교육은 한 지역이나 국가의 다인종화 혹은 다문화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제이해교육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이 하나의 공동체적 시각을 갖고 세계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가는 방법을 찾는 교육이라면 다문화교육은 특정지역의 공존하는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라고 하겠다.

III.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대립과 화합

이같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발한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은 그 목적과 교육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James Banks(1994)는 다문화 교육은 동일 국가 내에서의 다양성(diversity), 평등(equity), 정의(justice)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이들 주제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Ukpokodu는(1999) 이 두 교육을 동일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문화교육은 한 사회 내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관점의 증진을 중요하게 여기고 국제이해교육은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미국의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은 그 교육내용과 교육 주도세력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다문화교육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주도가 되었으며, 특히 시민운동, 평등, 사회정의, 유색아동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관심을 가진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민자의 수가 늘면서 이민자 자녀의 각기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에서는 다양성과 평등이 강조되었다. 반면, 국제이해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정책, 지역연구, 교육의 국제적인 교류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교육은 미국학생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체제에 대한 이해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으로 유럽계 미국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같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출발한 두 영역은 서로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고 근 20년 동안 서로 반목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상호 비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로에 대해 국내문제를 도외시 한다던가, 국내문제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일부 다문화교육학자들은 국제이해교육이 미국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성과 평등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준

비시키지 못했으며, 유색아동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거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국제이해교육 학자들은 다문화교육이 미국의 소수민족 계층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미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문화에 대한 교육이나 미국 내의 다양성과 평등의 문제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환경, 사회적 불평 등 및 다양성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너무 국내문제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McFadden, Merryfield, & Barron, 1997). 이러한 서로간의 반목은 재정적인 지원,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교육과정 확보, 그리고 사범대학내에서의 지위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계속 이어졌다.

이에 따라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관계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 내 주요이슈가 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서로 다른 목표를 지향하는 이 두 교육 영역 간에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이들 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교육의 개념과 목표가 이론적으로는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실현장에서는 이러한 차별화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이 실시된다는 사실이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판이하게 다른 교육목적과 내용을 지향하고 있지만 교실현장에서는 이 두 교육이 모두 논쟁이 심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다는 사실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고취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Diaz, Massialas, and Hanthopoulos, 1999; Banks, 1994). 또 한 가지의 발견은 기본적인 교육목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 두 교육이 혼용되어 실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었다(Ukpokodu, 1999). 즉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은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인 다인종 간의 다양성 존중 및 평등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반면,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국가나 일본의 문화적 다양성 문제는 훨씬 다루기가 쉬웠던 것이다. 이러한 성향으로 다문화교육을 하는 교사들도 실제에 있어서는 국내의 인종차별주

의, 불평등 문제보다 다른 나라의 문화이해나 정의를 다룸으로써 국제이해교육에 보다 근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Ibid.).

이같이 이론적인 관점과 달리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 통합된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문제가 다루기 힘든 주제였던 것 이외에도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최근까지는 다문화교육은 한 사회 내 살고 있는 소수집단의 교육에만 관심을 가졌었다. 그런데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생태환경, 핵무기, 인권, 자원부족 등의 세계적인 문제에 대처하여야만 하였고 이에 다문화교육도 세계적인 관점의 교육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은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도 한다(Bragaw & Thomson, 1992).

오하이오주립대학의 Merryfield교수는 그의 연구에서 최근 미국의 많은 교사교육 전문가들이 이 두 영역을 통합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Merryfield, 1996). 그는 77명의 교사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두 영역을 관련시켜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다: 첫째,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비슷하며, 그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좀 더 정의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공통적인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 세계에서 문화다양성은 지역적인 특성일 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특성이 되었다; 셋째, 학생들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것들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Merryfield (2000)는 최근의 다른 연구에서도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이 이론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수업현장에서 신중하게 통합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Merry Merryfield 이외에도 James Banks, Christine Sleeter, Christine Bennett 등과 같은 두 영역의 영향력 있는 일부학자들은 1990년대 이후 상호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두 영역의 공통

적 내용을 교사교육에 통합하려는 공동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두 영역간의 반목은 점차 감소해 왔으며, 최근 교사교육에서 이 두 영역이 추구하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교육을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로 미국 교사교육인증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NCATE)는 1994년에 교사교육에 이 두 교육의 관점을 모두 포함시키라는 새로운 기준을 공표한 바 있다 (NCATE, 1994).

한편 이 두 영역간의 통합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미국교육·사범대학협회 (AACTE: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for Teacher Education)는 최근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을 통합한 교사교육 안내서를 출간한 바 있다(McFadden, Merryfield, & Barron, 1997). 이 안내서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어린 학생들이 향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세계에서 유능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에서 이 두 영역이 모두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저서는 이 두 영역이 추구하는 목표의 공통점으로 다음 6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평등과 사회정의의 증진하려는 목적, 특히 구조적인 불평등과 억압에 대항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목적;

둘째, 집단 간의 관계 증진, 문화간 이해 능력 개발, 그리고 문화간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목적;

셋째, 스테레오타입, 편견, 차별을 감소시키는 목적;

넷째,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의 유사성에 대한 지식 함양;

다섯째,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지식 함양;

여섯째, 다양한 관점으로(특히 소수집단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사물이나 사건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기술의 습득.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전문가들은 최근 두 교육의 상호협력과 상호보완을 주장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즉, 그 동안 다문화교육은 국내에서의 다양성이나 차별문제에 관심을 두었고, 반면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다양성과 차별문제에만 관심을 두었다. 이제는 다문화교육도 국내 뿐 아니라 세계의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서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세계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이 될 것이고, 반면 국제이해교육은 국내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지적인 엘리트들의 공허한 주장으로 국내에서도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타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세계적인 차원에서 타문화 교육 뿐 아니라 이들 지역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와 이해에 대해서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학자들은 이 두 교육이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지만 다양성의 존중, 인류 보편적 가치의 추구, 사람과 문화의 상호의존성 이해와 같은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있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IV. 한국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교육적 과제

교육의 문제는 사회의 변화현상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때로는 이미 진행된 사회변화에 대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혹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적인 논의와 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곤 한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은 세계화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적 대안으로 한 동안 국제이해교육이 교육적 쟁점이 된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내 혼혈가정 및 이주노동자가정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적인 대안으로 다문화교육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 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1%를 넘으면서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단일민족국

가에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이 전체결혼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결혼가정 자녀교육문제는 한국이주 노동자의 자녀 교육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다문화 가정 출신의 취학 연령 아동과 청소년은 1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난심, 2007, 재인용). 이들 아동들은 학교에서 말세, 피부색, 문화 등의 차이로 집단 따돌림, 학습결손, 학교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맞이하는 학교교육, 2007).

이러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며, 향후 외국노동자가 더 많이 유입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다문화교육은 어떤 형태라도 우리 교육에 포함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 이해교육의 요소가 추가·보완된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여러 교과서의 개정 교과서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난심, 2007).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1995년부터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안에 국제이해교육이 포함되면서 국제이해교육의 한 분야로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제이해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었으며, 여러 학교들이 국제이해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는 등 이미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실시되어 왔다.

다문화 이해는 2001년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이 제안한 국제이해교육과정에서도 세계화, 인권,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주요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태국제이해교육원, 2001). 그러나 최근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문제가 대두되면서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고, 관련 학자들과 교사들

은 이것이 기존의 국제이해교육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 두 영역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혹자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문화교육'이 '국제이해교육'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국제이해교육'에서 이미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이 '국제이해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자칫 편의에 따른 용어사용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교육정책 수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교육 분야는 서로 유사한 측면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각자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두 교육 영역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함께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취지의 교육이라면 '국제이해교육'의 타문화 이해 교육과 유사하다. 다만 '다문화교육'이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국제이해교육'은 이들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문화이해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교육'이 '국제이해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다문화교육이 이해의 차원을 넘어 한 사회내의 주류와 소수인종간의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은 평등한 사회 지향을 위한 사회개혁(social reform)으로, 이중 언어교육과 소수민족에 대한 보상정책 등을 추구하게 된다.

셋째, '다문화교육'이 한 국가의 차원에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이 국내지향적 교육이라

면, '국제이해교육'은 국제지향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즉 국내의 다문화적 갈등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다문화 이해도 국내의 다문화적 갈등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다문화적 갈등 상황에 주목하는 '다문화교육'이 '국제이해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세계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국제이해교육'이 '다문화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들은 그 논거가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이 두 교육 분야는 서로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지만, 발전과정에서 서로의 시각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국내문제의 국제화와 국제문제의 국내화가 환경, 인권,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 두 교육 분야가 초기의 대립 양상을 극복하고 통합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시작단계에 있다. 아직 그 필요성만 인식되고 있을 뿐 개념의 정립과 함께, 교육내용과 범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다문화교육을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또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으로 단순화하거나, 반대로 다문화교육이 기존의 국제이해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은 어떤 것인지 외국의 사례를 탐구하고, 우리의 시각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우리 사회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다문화교육이 사회적 주류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소수민족의 문화를 이해시키는데 주력할 것인지, 평등의 관점

에서 교육의 주 대상을 소수민족으로 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전개될 사회적 변화를 예측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현덕. (2000, 봄). 국제이해교육의 개념과 방향. *국제이해교육*, 창간호, 85-124.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2001). *세계시민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아태국제이해교육원.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2004). *함께 배우고 나누는 세계의 교실 1*.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2007) 다문화사회를 맞이하는 학교교육: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사회 교육. *아태국제이해교육원 2007년 제1차 국제이해교육포럼*.
- 조난심. (200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을 통해 본 다문화교육의 밑그림. *아태국제이해교육원 2007년 제1차 국제이해교육포럼*.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01). *지구촌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초·중등학교 교육용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연구)*.
- 한명희 외. (1996). *국제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서울: 정민사.
- Banks, J.A., & Banks, C.A.M. (1993).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Boston: Allyn & Bacon.
- Banks, James. (1994).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Boston: Allyn & Bacon.
- Bennett, Christine. (1990).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Mass.: Needham Heights.
- Bragaw, Don. & Thomson, Scott.(Eds.) (1992). *Multicultural education a global approach*. New York: The American

Forum for Global Education.

- Diaz, Carlos. & Massialas, Byron. & Hanthopoulos, John. (1999). *Global perspectives for educator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McFadden, John & Merryfield, M. & Barron, Keith. (1997). *Multicultural & global/international education: Guidelines for programs in teacher education*. Washington, DC: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for Teacher Education.
- Merryfield, Merry. (Ed.). *Making connections between multicultural & global education*. (1996).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for Teacher Education.
- Merryfield, Merry. (2000). Why aren't teachers being prepared to teach for diversity, equity, and global interconnectedness? A study of lived experiences in the making of multicultural and global educato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6, 429-443.
-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NCATE). (1994). *NCATE standards*.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NCATE)
- Sutton, M. & Hutton, D. (Eds.). (2001). *Concepts and trends in global education*. ERIC Clearinghouse for Social Studies/Social Science Educati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 Ukpokodu, Nelly. (1999). Multiculturalism vs. globalism. *Social Education*, 63(5). 298-300.

[요약]

20세기 말부터 우리나라 사회에 변화를 초래하고, 또한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념으로 '다문화사회'와 '세계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념에서 비롯된 두 개의 교육영역인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 상호 개념적,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두 교육의 발생배경과 발전과정을 통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관계정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역사적으로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발하여 그 목적과 교육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여 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 두 교육 분야 간에 오랫동안 서로 반목과 대립을 하는 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교육현장을 관찰한 이 두 분야의 학자들은 이러한 차별화가 교실에서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은 비로소 두 교육 분야 간의 상호협력과 상호보완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향후 이 두 교육 분야는 서로 고유한 영역을 갖고 발전을 계속하겠지만, 서로의 시각이 상호 보완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한국 다문화사회화에 대비한 교육적 과제를 논의하였다. 다문화사회화가 시작된 한국사회에 맞는 교육의 방향은 외국사례의 탐구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한 후, 향후 전개될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사회, 세계화,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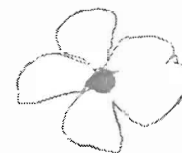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Hyunduk Kim(Associate Professor, Kojé College)

'Multiculturalism' and 'globalization' in our society have made an impact on the education in Korea since the end of 20th centur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EIU)." For that purpos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ducational fields were examined through the comparisons of their origins and evolutionary processe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educational fields were applied to Korean situations in a way to establish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ducational aren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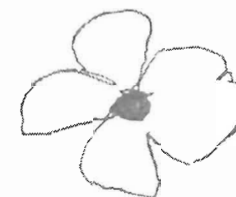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IU started with different backgrounds, goals and contents. Particularly in the U. S., tensions or conflicts had existed between the two fields for a long time. Recently, however, scholars find out there are few difference between the two fields in school practices. Now they have begun to make conceptual connections between them and integrate their theories and practices. Both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IU will continue to maintain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but there will be a great possibility of an interface between two educations. Final discussion was focused on the educational tasks to be implemented for the incoming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Key Words : Multicultural Society, Globaliz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EIU)



현장 연구

Case Studies



[현장 연구]

ICT를 통한 교육활동 교류로 하나 되는 지구마을

김명순 | 대전외삼중학교 교장(butsio@hanmail.net)

I. Communicative Community

인간의 행복 요건 중 의식주의 해결이 해결된 후에는 소외의 극복이라고 본다. 소외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개인 간의 소통의 부재는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를 불러와 개인이 속한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개인의 소외는 개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능력 등에 의한 소외도 있지만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오는 국가, 지역, 인종, 종교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소외도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지역, 인종, 민족, 종교, 이념, 사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독특한 문화를 동반하고 있다. 서로간의 문화 이해가 부족하여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국가 간 분쟁, 갈등, 마찰, 전쟁이 일어나 무고한 인간들이 목숨을 잃거나 목숨을 내던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탈레반에 의해 납치되어 2명이 살해되는 슬픈 일을 어찌 두고만 볼 수 있으며, 2명이 석방되었으나 아직 19명이 억류되어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것을 어떤 종교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떤 이념으로 해명할 수 있단 말인가?

본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정치가의 협약이나 동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실천적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1999년부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외국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CCAP: 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me)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원어민이 가르치는 외국문화 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삶을 통한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다문화 이해 국제 마인드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ICT 기술이 발달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Communication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달은 되어있지만 국가 간 이해는 되지 않고 문화권과 문화권 간의 문화 충돌이나 국가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같은 국가 안에서도 계층 간 지역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술은 있으나 소통을 위한 contents가 약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교가 ICT국제교류협력학교로 지정된 것은 참 다행한 일이며 우리나라가 주도적 위치에서 APEC 회원국들과 교육을 통한 Communication 시도하게 된 것은 하나의 교육 trend를 낳는 것이며 세계사에 위대한 역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류의 희망을 실현하는 큰 동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에 본인은 지난 2006년까지 본교에서 운영했던 “ICT 모델스쿨”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이해 교류활동 발전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APEC 공동체

1. APEC 공동체

세계에는 지역 경제협력기구가 있다. 역사성이 있고 각 분야에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EEC(Europe Economic Cooperation)가 있다. EEC는 경제협력이 잘 이루어져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쓰고 있으며 지역 협력기구의 모델이 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인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국가(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nada, Chil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ng Kong, China, Indonesia, Japan, Republic of Korea,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Peru, Philippines, Russia, Singapore, Chinese Taipei, Thailand, United States, Viet Nam)가 회원국을 갖추고 있다. 유럽과 다른 것은 지역이 더 방대하고 회원국이 인종, 문화, 지역, 경제적 여건 등이 격차가 심하고 더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은 지역 협력체제의 역할이 크며 그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각 분야에서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교에서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만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IACE(Institute of APEC Cyber Education)¹⁾

1) <http://www.goiace.com/sub1.htm> APEC 사이버교육원(Institute of APEC cyber education: IACE)은 APEC 역내 국제 교육 협력을 위한 지원 및 자문을 담당하기 위해 2002년 12월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APEC 사이버교육원은 APEC 회원 국가들과 Human Network를 구축하고 교육정보화 및 국제화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상호 연구하고 논의하며 실천적 적용 방안들을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보화와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기획 및 자문 그리고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ACE는 그 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 추진되어 왔던 APEC 사이버교육협력(APEC Cyber Education Cooperation: ACEC) 컨소시엄 한국

IACE의 연혁²⁾에서 살펴보면 2002년 10월 APEC 국제 교육 협력을 담당할 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2002년 12월 한국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IACE로 정식 설립 인가를 받았다. 2003년 1월 한국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APEC 사이버교육협력 컨소시엄(ACEC) 한국 프로젝트 추진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3년 1월 ACEC 의장이자 부산대학교 교수인 김영환 박사를 초대 원장으로 위촉을 받아 현재까지 이 일을 추진해 오고 있다.

프로젝트를 APEC 학습공동체(APEC Learning Community: ALCom) 사업으로 통합하여 발전시켜 왔으며 APEC의 공동체 정신이 바탕이 되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그리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이해와 협력을 통해 21세기 학습 사회(Learning Society)를 이루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2) 2002. 10. APEC 국제 교육 협력을 담당할 기관 설립 추진
2002. 12. 한국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IACE로 정식 설립 인가
2003. 1. 한국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APEC 사이버교육협력 컨소시엄(ACEC) 한국 프로젝트 추진기관으로 선정
2003. 1. ACEC 의장이자 부산대학교 교수인 김영환 박사를 초대 원장으로 위촉
2003. 4. ACEC 한국 프로젝트의 통합 발전 방향수립을 위한 제 1차 이사회 개최
2003. 5. ACEC 한국 프로젝트의 통합 발전 방향 수립과 APEC 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제2차 이사회 개최
2003. 6. IACE 및 ALCoB 홈페이지 운영
2003. 7. HRD WG 말레이시아 회의에서 APEC 학습공동체(ALCom) 프로젝트 발표
2003. 8. 한국 ALCoB 결성식 및 워크숍 개최
2003. 8. 말레이시아 APEC 세미나 참가
2003. 9. ALCoB Online Community 개발 및 운영
2003. 10. APEC Cyber Academy Project에 한국 ALCoB 참가(6개 팀)
2003. 11. 2차 한국 ALCoB 워크숍 개최
2003. 12. 필리핀 AIV 파견
2003. 12. 인도네시아 AIV 파견
2003. 12. 중국 AIV 파견
2004. 1. 태국 AIV 파견

그동안 APEC 미래교육포럼은 APEC 미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APEC 미래교육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APEC 사이버교육 협력 사업이 확대 발전된 것이다. APEC 미래교육사업은 제 3차 APEC 교육장관회의(2004. 4-칠레)에서 교육부총리가 제안하고 제 26차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회의(2004.5-제주)에서 APEC 공식사업으로 승인받았다.³⁾

그동안 일선학교와 연계하여 회원국 학교들 간에 ICT 국제 교육 협력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2005년 11월 12-13일 부산에서 APEC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에서 18개 초중고 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APEC 미래교육사업의 하나로 이미 ICT 모델스쿨 네트워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또 하나의 주요사업인 '미래교육포럼'을 지난 9월 8일부터 11일 까지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제1차 APEC 미래 교육포럼⁴⁾은 APEC 역내 회원국 간 교육협

- 3) <http://www.goiace.com/sub1.htm> INTRODUCTION. APEC 사이버 교육원(Institute of APEC cyber education: IACE)은 APEC 역내 국제 교육 협력을 위한 지원 및 자문을 담당하기 위해 2002년 12월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APEC 사이버교육원은 APEC 회원 국가들과 Human Network를 구축하고 교육정보화 및 국제화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상호 연구하고 논의하며 실천적 적용 방안들을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보화와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기획 및 자문 그리고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ACE는 그 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 추진되어 왔던 APEC 사이버교육협력(APEC Cyber Education Cooperation: ACEC) 컨소시엄 한국 프로젝트를 APEC 학습공동체(APEC Learning Community: ALCom) 사업으로 통합하여 발전시켜 왔으며 APEC의 공동체 정신이 바탕이 되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그리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이해와 협력을 통해 21세기 학습 사회(Learning Society)를 이루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4) 제1차 미래교육포럼

력을 증진하고 미래교육에 대비해 혁신적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APEC 17개 회원국에서 협력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APEC 회원국 교육관계자, 전문가 및 저명학자들이 미래 사회와 교육의 모습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ICT 모델스쿨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철학과 비전을 탐색하면서, ICT 모델스쿨 간 교류 활동 점진 및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다.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1차 미래 교육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일단 직원회의를 열어 민간 외교사절이라는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나라 안에서 외국인을 만날 때에도 외교관처럼 대하고 국외에 나가 외국인을 접할 때에도 국가를 대표한 외교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을 해 주었다. 이번에 우리학교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제5중학교와 교류학교로 지정을 받아 족자카르타중학교 교장과 교사 두 분을 한국 부산으로 초청하여 제1차 미래교육포럼에서 양교에서 추진할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초청에 드는 비용을 초청교인 우리학교에서 부담하기로 되었는데 기왕에 한국까지 왔는데 포럼 후에 대전에 들려 학교 및 교육 및 과학 관계시설을 방문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홍보도 하고 그들의 견문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모든 초청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얼굴색과 모양이 다른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 이상하고 낯선 분위기 속에서 회의는 영어로 진행되었다. 동남

1. 일 시 : 2005. 9. 8(목) - 9. 11(일)
2. 장 소 :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한화콘도
3. 참여 회원국 및 참여자
 - 참여 국가 : 총 17개국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칠레, 대만, 홍콩, 멕시코, 미국, 뉴질랜드)
 - 참여 학회: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한국기업교육학회, 일본교육미디어학회
 - 참 여 자 : 총 400명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많아 친근감마저 느껴졌고, 준비된 자료집과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을 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다.

III. 교육 공동체

1. ICT를 통한 세계화

세계 어느 곳이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건 Internet은 연결되어 있다. 국경이 열려있다고 하여 모든 것이 통한다고 할 수 없고 Internet이 세계의 각 가정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세계가 다 통한다고 볼 수 없다. ICT는 연결되어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아니다.

첫째, ICT기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이고 이동전화 보급률도 세계 1위로 ICT기반이 잘 갖추어진 나라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수준이 떨어져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많다. 우리의 제품과 기술 뿐 아니라 콘텐츠의 개발 보급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상대국에서 인터넷 보급 및 활용 환경을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어 성장하는 젊은 세대가 먼저 인터넷 마인드를 길러야 한다.

둘째, 의사소통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처음 도입단계에 그 대상을 어린이에게 두었고 그 어린이가 성장하여 중심 활동 세대가 되었다. 1988년 조선일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넷 운동을 벌인 것이 키즈넷운동이다. 인터넷을 가르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동을 펼치는 이유를 인터넷은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라고 했다. 모니터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표현하고 해결하는 마인드를 기르는 때는 어린이가 훨씬 빠르며 그렇게 성장한 어린이가 주역이 될 때 그 힘은 대단하다고 했다.

이로보아 인터넷의 보급 확산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즉 학교에

서 먼저 적용 확산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ICT를 통한 교육 활동의 교류가 곧 인터넷 콘텐츠가 되어 세계로의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낼 것이다. 오늘날은 인터넷 마인드와 국제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 마인드는 인간존중마인드와 생명존중마인드이다. 세계의 모든 시민은 인종, 국가, 종교를 초월하여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자기 생명을 존중받아야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마인드를 갖아야 한다. 세계 시민은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존중하여 건강한 생명 환경을 가꿀 줄 아는 생명 존중 마인드를 갖아야 한다. 이러한 생명 존중 마인드를 기본으로 교류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ICT를 통한 세계화 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2. 미래학교 모델

미래 학교 모델은 열린 학교 모델이요 열린 교육 모델이다. ICT를 통한 교육의 장이 확대되었으므로 열린 학교 모델이고, 교육의 내용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고착된 것이 아닌 현재의 생활에서 더 나은 미래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어떠한 내용도 학습의 범위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열린교육 모델이다. 미래 학교 모델은 앞의 내용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학생과 교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1) 학생 교류 모델

지금까지의 국제간의 학교 자매결연 활동을 보면 오프라인 상에서 자매결연 맺고 방학 중에 상호 학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공동 수행하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문화 관광지를 관광하는 식의 교류활동을 해왔다.

ICT 미래학교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단계로는 ICT 교류 단계이다. 상호간에 교류 의사에 동의하면 상호 국가 간 의사소통에 가장 효율적인 언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문화, 생활, 취미 등의 영역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차 후 방문 단계에 대비한 위밍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ICT교류단계는 방문단계나 학생 교류단계에서도 계속되는 기본활동이 된다.

제2단계는 방문 교류단계이다. ICT 교류단계에서 상호 방문 교류 단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구상하고 일정을 계획한다. 숙박은 홈스테이방식을 선택하여 함께하는 삶을 통한 문화 이해를 돕도록 하는 등 방문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은 ICT교류 단계의 활동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체류기간은 경제적 여건 방문 프로그램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4박 5일 정도로 일주일의 넘지 않는 기간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제3단계는 교환 학생 교류단계이다. 방문단계가 짧은 기간 동안의 방문이라면 학생 교류단계는 1개월 이상 긴 기간 동안 학생이 홈스테이 하면서 상대 학교의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체험하는 단계이다. 즉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것이다.

이 경우 양 학교에서 교환학생 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을 양교 동수로 모집하여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외국학생을 초청하면 한국 학생 가정에서 한국 학생과 같이 기거하면서 한국 학교를 1개월간 다니고, 바로 이어서 외국학생과 함께 한국 학생을 상대국 학교로 보내 1개월 간 학교를 다니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으로 체류기간을 1개월로 했을 때 두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기간은 2개월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현재 일본문화반에서는 일본 학생들과 메일교류를 하고 있으며 일본 무마모토 중학교와 상호 방문 계획을 의논중이며, 이러한 국제교류활동을 주도할 교사를 양성 발굴하고 있다.

2) 교사 교류 모델

ICT를 통한 교육 교류는 궁극적으로 학생들과의 교육 콘텐츠의 교류와 공유이지만 이를 지원하고 돕는 교사 상호간의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의 교류가 동반되어야 효과가 있다. 교사 교류는 결연 학교 교사 간의 교류 및 세미나 포럼 등의 참여가 있고 이를 위해 상호 방문하거나 ICT를 통한 communication이 있어야 한다.

IACE에서는 교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차 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했으며, 우리나라의 ICT기반을 해외 학교에 전파하여 동등한 교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국에 자원봉사활동단을 파견하여 ICT기반 구축을 돕고 및 교사 접촉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IACE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나타나있는 게시 내용⁵⁾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금년(2007)에도 국제 알콕 컨퍼런스가 9월5일(수) - 9월8일(토) 까지 개최되어 회원국 교사들의 교류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 <http://www.goiace.com/sub1.htm> news & activities

[AIV모집]중국 알콕 인터넷 봉사단 모집

본원에서는 2005년 중국 인터넷 봉사단(AIV)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알콕 교사 및 사범대, 교대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 안내] 수학 과학과 국제세미나 참가 알콕 모집

오는 2005년 11월 14일(월) 부터 18일(금)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수학 과학과 국제 세미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할 알콕 선생님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AIV모집] 알콕 인터넷봉사단원(필리핀) 추가모집

알콕인터넷 봉사단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파견국은 "필리핀"이며 모집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봉사단 파견시기 : 10월 2일~10월 12일(예정)

[AIV 모집] 알콕 인터넷봉사단원(베트남) 추가모집

알콕인터넷 봉사단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지난번 최종 선발한 2005 알콕 인터넷봉사단(AIV)에 결원이 생겨 다시 한 분을 모집합니다.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모집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IV. 미래 교육의 Contents

1. 개별성을 통한 다양화 학습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같아도 수단과 방법이 다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속한 사회의 가치관이나 종교관 문화만이 유일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평화로운 삶을 저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용하는 자세에 인색해 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국가, 지역, 인종, 종교, 문화, 역사 등의 개별화 요인이 갈등을 일으켜 국가 간 갈등이 분쟁으로 분쟁이 전쟁으로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개별성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양화 학습이다. 우리는 ICT를 통한 교육 교류를 통해서 다양성을 학습하여 평화로운 국제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별성을 통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화로 우리의 삶을 건조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현실 문제 해결 학습

ICT를 통한 국제 교육 교류 콘텐츠는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을 지도하기 위한 교과서 내용에 간혀서는 안 된다. 국제교육 교류 콘텐츠는 각국마다 현실적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여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는 인류 공통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어떤 문제가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를 초월하여 전 세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범주가 국가를 초월하여 인식될 때 인류 사회에 희망이 감돌고 평

화의 서광이 보일 것이다.

실제적인 문제를 들어보면 전쟁의 원인, 환경 파괴의 원인, 기아의 원인, 문화 충돌의 원인, 생명과학의 문제, 종교 갈등 문제, 자원 고갈의 문제, 공해의 문제, 도덕성과 가치관의 문제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국가 간의 문제이거나 일부 지역의 문제로 취급되어 자기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때에는 남의 나라 일로 소홀히 여겨왔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국가 간에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해결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갈등과 분쟁으로 비화되곤 하였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ICT 환경 속에서 교육 교류를 통해 집단의 구성원인 세계 시민이 될 젊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담론화하여 국제 마인드를 길러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ICT를 통한 교육 국제 교류는 인류사의 한 획을 긋는 인류 문제 해결의 대전환기를 여는 교육사 조요 시대사조가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연구자가 추구해온 국제 마인드이면서 이번 제1차 미래교육 포럼에서 IACE회장인 김영환⁶⁾ 박사가 발표한 Meeting the Challenges of Future Education in APEC : toward APEC Edutainment Park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본인 으로서는 가장 큰 소득이었다. 김영환 박사는 Global Issues로 Population, Pollution, War and Terror, Economic Divide, Entropy, Environmental Issues 등을 들었다. 그리고 이의 해결을 위해 ICT Model School Network으로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단순히 학생교육 차원이 아닌 평생교육(Life Long Education)의 차원으로 발전시켜 자아실현(Self-attainment)을 돕기 위해 관계를 가정, 학교, 사회 속에서 공고히 하여 학습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Relationship among home, school, and

6) YoungHwan Kim, Ph.D. President, Institute of APEC Cyber Education Pro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society ⇒ Construction of learning city)

3. Some Basic Principles for APEC Future School Model

김영환 박사는 그의 presentation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이기심이 전혀 배제된 인류가 진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사조의 선언이라고 본다. 김 박사가 제시한 8가지 원칙 중 세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Considering Multiple Paradigms

미래교육은 다양성을 고려한 패러다임의 시대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Education must involve all sectors of society including social-cultural, ethical, economic, physical, scientific, and aesthetic.”라고 하였다.

2) Aiming for Meaningful Life

미래교육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제적인 정보를 공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 간의 겹을 좁혀야한다는 것이다. 인류가 함께 추구하는 삶은 건강한 비전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을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삶이란 Enjoying “the good life”이며 개인도 국가도 서로 돕는 봉사적 삶을 통한 “Healthy Life”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3) Volunteering for ‘Healthy Life’

자원봉사란 국가를 초월한 세계적 마인드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국제적 community를 들면서 APEC Cyber Education Cooperation(ACEC), APEC Future Education Consortium, APEC Internet Volunteers(AIV) 등을 들었다. ICT Model School Network에 참여하는 교사들도 Volunteering for ‘Healthy Life’이라고 하였다.

4. APEC Edutainment Park

김영환 박사가 제시한 APEC Edutainment Park라는 표현 속에 Park라는 단어를 기용한 것이다. 우리의 삶의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까지도 즐겁고 재미나는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차원의 지역교육공동체를 뜻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 concept and possibly a place where:

APEC Edutainment Park라는 장소의 개념은 어쩌면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 A system to exchange learners and teachers internationally
학습자와 교사가 국제적 교류를 하는 하나의 시스템
- Nature-friendly learning and experience occurs.
자연 친화적 학습과 경험의 발생
- Schools are linked to other schools in other cities.
학교가 다른 도시의 학교와 연결된다.
- The latest technology meets Nature.
최근의 기술이 자연과 만난다.
- Domestic learning experience can combine with international learning in cyberspace as well as in reality.
가상의 학습 경험은 현실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학습과 결합 할 수 있다.
- This blended environment leads people to reflect on experiences through learning, play, and adventure.
이러한 복합된 환경은 사람들을 놀이와 모험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의 세계에 영향을 준다.

1) What to teach ⇒ Learning for value

가르쳐야할 것 ⇒ 가치에 대한 학습

- Volunteering -- for a meaningful and healthy life

의미심장하고 건강한 생활[일생]을 위한 자원봉사 하는 것

- Having multiple philosophical perspectives to overcome the economic-oriented paradigm.
경제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관을 극복하는 다중 철학의 원근화법을 가지는 것.
- Understanding different cultures and communicating with foreign people with joy.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즐겁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하는 것.
- Empowering self-esteem to choose appropriate goods and knowledge
적절한 상품과 지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기르는 것.
- Protecting and cultivating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
- Sharing and caring makes us happy
우리 함께 행복하고 행복 유지하는 것.
- Studying not only for a job but also for true Meaning of life
직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실한 의미를 학습하는 것.

2) How to teach 어떻게 가르치나

- Learning with on-line, off-line and hands-on activities(Caution to the "only e-learning"ism)
온라인 오프라인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e-learning 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 Experiencing is good: self-reflecting on that experience is better; sharing the reflection is best.
경험이 좋다는 것은 경험에 의한 자기성찰이 더 좋다는 것을 말하며, 자아 성찰한 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말한다.

- Using adaptive technologies(e.g. intelligent LMS) for individualized learning.

개별 학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이용

- Gaining help from divergent resources(such as international ALCoBs)

국제적 단체인 ALCoBs와 같은 기구에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터 도움을 얻는 것.

- Encouraging group work on- and off 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group working을 격려하고 옹호 하는 것.

- Using different language, culture, location and background of each participating economy

참가 국가의 다른 언어, 문화, 지역을 이용하고 국가가 지니고 있는 배경을 이용하는 것.

3) What can we do for it?

APEC ICT Model Schools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 Making international exchanging program for students and teachers.

국가 간 학생과 선생님과 교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 Conducting more cooperative research on experience-based learning system such as APEC Edutainment Park.

APEC Edutainment Park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습체에 대한 협동적 연구

- APEC ICT Model Schools can start some small pilot programs.

모델스쿨들이 몇몇 작은 시범(실험, 모험, 조종)적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

5. UNESCO CCAP ACTIVITY

UNESCO 한국위원회에는 CCAP(Cross Culture Awareness Programme: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활동이 있다.⁷⁾ 이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각국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통역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여 CCAP 프로그램 적용을 원하는 초중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외국인으로 하여금 자국의 문화를 한국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다문화 이해를 통한 국제이해 교육의 효과가 있고 지도교사와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교사의 국제이해마인드를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본인은 1999년부터 이 운동을 대전지역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이를 통해 여러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서울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관계로 많은 학교에 적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대전국제이해교육실천연구회를 창립하였다. 앞으로 대전에 체류하는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통역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이용하여 운영한다면 APEC 미래학교 모형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7) <http://ccap.unesco.or.kr/> About CCAP

At no other tim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has there been such a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technology brings people closer together day-by-day, cooperation is becoming essential to peaceful human co-existence.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mutual understanding among different people, CCAP, organised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s been introducing a diversity of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to the Korean youth since 1998. CCAP is designed to be a participatory process that augments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schools nationwide and promotes a culture of tolerance and mutual respect.

V. 행복을 나누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지구마을

그동안 국제이해 교육에 관여해온 사람으로 이번 제1차 미래 교육 포럼에서 얻고 느끼고 생각한 바가 참으로 크다. 학교장으로서는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교육 교류 뿐 아니라 교사 자신의 선진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는데서 가슴 뿌듯하다.

개인이나 국가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해가 오고 오해를 풀지 못하면 갈등이 오고 갈등이 오래 가면 분쟁이 일고 분쟁이 잦아지면 전쟁이 오며 전쟁의 패자는 테러를 낳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APEC 공동체 내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의도를 초월하여 국가간의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 참 훌륭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실제로 교육 교류 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서로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활동단계에 접어든 것이 대견스럽기만 하다.

배고픈 자 옆에서 혼자 배불리 먹고 행복할리 없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있는 국가가 있는데 혼자서 '나는 행복합니다.'를 외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사욕을 초월한 상태에서 보면 있는 것도 죄가 되고, 잘난 것도 죄가 되고, 혼자만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될 때가 있다. 이웃을 보고 이웃나라를 살펴보고 지구촌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인류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지구촌 모두가 행복을 나누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오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APEC ICT Model School Network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연구학교 수행은 끝났어도 'ICT를 통한 교육활동 교류로 하나 되는 지구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UNESCO 협력학교 활동 등 수용 가능한 국제교류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현장 연구]

주제별 다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자질 함양

백옥련 | 경기도 양지고등학교 교사(baikok75@hanmail.net)

I. 연구의 배경

I. 운영의 필요성

안산시에는 각종 중소기업이 밀집한 공단지역이 있어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나 그 가족들과의 교류 기회가 비교적 잦은 편이다. 외국인 100만명 시대, 이주 노동자 40만명, 국제결혼 13%로서 우리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안산시에는 거주 이주민이 4만~5만명, 결혼이민자 약 2,800명이 생활하고 있다.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거주지인 고향마을과 탈북자 공동체인 다리공동체가 초지동에 있고 원곡동에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인 국경없는 마을이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은 사회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

게 하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교육은 시작단계에 있으며, 그 필요성의 인식과 개념의 정립을 통해 평화와 공존을 이루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다문화교육의 대상인 소수민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다수인 주류를 위한 교육 역시 그 필요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본교에서는 “주제별 다문화 체험 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이라는 주제로 다문화교육을 시행하였다.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편견없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켜, 글로벌 시민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와 창의력 및 국제인의 소양을 갖춘 인재의 육성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을 하고자 먼저 본교의 환경과 여건을 분석하여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여서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였다.

2. 운영 목적

우리 학교에서는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현시키는 것을 운영의 목적으로 하였다.

- 가. 다문화 교육을 위한 여건을 제공한다.
- 나. 주제별 다문화 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한다.
- 다.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글로벌 시민 자질을 내면화한다.

3. 운영 방침

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쓴다.

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교육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적용한다.

다.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학생축제 등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관련 이론의 탐색

가.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란 용어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두된 것으로 아직 개념이 뚜렷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문민정부가 시작되며 세계화가 강조되었으며, 이것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국제이해교육(global education, international educ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이해 교육이 함께 시행되어 왔다.¹⁾ 다문화이해(intercultural understanding)는 다른 나라의 문화이해(international understanding) 뿐만 아니라, 한 국가에서의 다양한 문화이해(intracultural understanding)를 함의한다. 다문화이해는 국경을 넘어선 다른 문화 뿐 아니라, 그 문화가 또 하나의 하위문화로서 자신의 영토권 안에서 자리매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타 문화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함께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취지의 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이 ‘국제이해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다문화교육이 이해의 차원을 넘어 한 사회 내의 주류와 소수인종간의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은 평등한 사회 지향을 위한 사회개혁(social reform)으로, 이중언어교육과 소수민족에 대한 보상 정책 등을 추구하게 된다.²⁾

1) 김현덕. 2007.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프랑스에서 다문화교육이란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 정의의 문제와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행동”(Frédérique Berthiot, 2003)으로 정의하며, 다문화교육이란 “다문화적 감수성으로 민주적 이상을 확인하고 인간과 삶의 복수성을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것”(Frédérique Berthiot, 2003)임을 강조한다. 문화간 교육(Education interculturelle)으로 통용되며, 문화간(interculturelle)의 접두어인 “inter”의 의미가 지니는 상호작용, 교류, 경계허물기, 상호호혜성이라는 개념에 착안한 것이다. 다문화교육이 타문화의 이해를 넘어 상호 호혜적 관계의 발견과 다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이가 이 용어에 담겨 있다.

프랑스에서 다문화란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일컬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지와 태도를 학습하는 것은 “문화간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으로 정의한다. 사회 안에서 문화적 복수성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의 목적을 찾으려 하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수자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제도적 편견과 상식을 넘어 전통적 사고체계 즉 편견과 상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소수자 그룹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주류적 삶의 양식에 대한 배움을 포괄하는 것이다. 주류 사회에서 그들의 자존감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다양한 문화적 기호와 지식의 습득에 중점을 둔다. 공동체 언어 속에서 주류의 기호를 갖지 못하면 늘 타자 혹은 소외계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³⁾.

우리나라는 외국인 100만명, 불법과 합법 취업자를 합쳐서 이주노동자 40만명, 국제결혼 13%, 새터민 약 11,000명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2) 김현덕. 2007.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3) 이민경. 2007. 프랑스에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 교육의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나 새터민, 결혼 이주민들과 그 자녀뿐만 아니라 기업주, 직장동료, 한국인 남편, 한국인 부인, 가족,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학교행정가 지역 주민 등 한국인 전체가 대상이 된다.⁴⁾

나. 국제이해교육

국제이해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정책, 지역연구, 교육의 국제적인 교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생태환경, 핵무기, 인권, 자원부족 등의 문제에 대처해야 하였다.

국제이해교육의 발생배경은 세계화와 관련이 깊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전 세계적인 보편화는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화(inter-dependence)를 가져왔다. 세계의 상호의존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구촌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인구, 자원, 빈곤, 인권 등의 문제들이 세계적인 문제로 주목받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 잦은 이동으로 인해 문화 간 갈등이 증가하고 문화 간 상호이해 및 다양한 시각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세계의 상호의존화가 증대되면서 세계이해(global understanding) 혹은 국제이해(international understanding)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세계교육’ ‘국제이해교육’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이 국내지향적 즉 ‘우리안의 타자’에 대한 교육이라면, ‘국제이해교육’은 국제지향적 즉 ‘우리 밖의 타자’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되면서 10여개의 재량활동 과목에 국제이해교육이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세계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5개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어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더불어 사는 의식

4) 박숙희. 다문화사회에서 인식의 변화

을 가진 지구촌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다. 글로벌 시민자질

한 사회의 문화와 다른 사회의 문화가 만나거나 그 구성원들이 만나는 상황에서 문화 사이의 상호 작용 혹은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안 친숙하게 보이던 것이 낯설거나 생소한 것으로 여겨지게 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과 외국인들 간에 문화적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때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친숙한 어떤 행동을 하면, 외국인들은 그들의 문화적 맥락에서 학습한 방식으로 그 행동을 해석하며, 거꾸로 외국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해석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바람직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려면 상호 작용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책임, 연대 의식과 국제적 상호 이해, 민주주의와 관용 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윤리 원칙에 부응하는 태도와 행동 방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서로의 문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올바른 자세는 다음과 같다⁵⁾.

- 1)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춘다.
- 2) 다른 문화적 특징에 대한 호기심, 열린 마음, 이해력을 갖춘다.
- 3) 다른 문화적 생활 방식과 만나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다루며, 불안을 시 인하고 긴장 관계를 참고 견딘다.
- 4) 낯선 사람들과 낯선 것에 대한 편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5)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을 존중한다.
- 6) 자신의 관점을 반성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다른 관점에 대해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 7) 한 사회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공통의 기초에 대한 합의를 찾는다.

5) 교육인적자원부, 전게서, p245

- 8) 서로 다른 민족적-문화적-종교적 소속감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평화 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으로 합의를 본 규칙에 따라 갈등을 조정한다.

2. 선행 연구 분석

본 연구의 방향 정립을 위해 관련 있는 선행 연구를 【표 1】과 같이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선행연구 분석

연번	년도	연구자	연구 주제	본 연구와의 관련성
1	2001	창원 중앙여고	특별 활동을 통한 국제 이해 교육	효과적인 국제이해교육을 위해 교사 연수의 필요성 강조
2	2002	부산국제 고등학교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한 국제 이해력 증진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해 국제이해력을 높이는 다양 한 문화체험활동이 가능.
3	2005	김선경	국제이해교육이 타문화 이해와 지구공동체 의식 함양에 미치는 효과	국제이해교육학습은 탐구 학습이 먼저 이루어지고 체험학습이 이루어져야 함.
4	2005	한명희	중학생들의 국제이해력 증진 방안	타문화를 이해하는 교육도 이해교육은 단계적 교육프 로그램을 수립 후 실시해 야 효과적임
5	2006	용호 중학교	주제별 체험활동을 통한 지구촌 시민의식 함양	5가지 영역에 따른 주제별 학습을 통해 '함께 살기 위 한 교육'을 달성할 수 있음

3. 선행연구의 시사점

관련 문헌의 배경 이론과 선행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 첫째,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 둘째, 창의적 재량활동과 같은 교육과정을 통한 체험활동이 효

을적이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탐구학습이 이루어진 후 체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데에는 중요성 인식, 프로그램적용, 생활화와 같은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제별 체험학습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4. 설문 분석

본교가 위치해 있는 안산시에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공단이 연결해 있고, 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다. 특히 원곡동에 있는 '국경없는 마을'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근거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환경적인 여건은 사회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해주며, 다문화교육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말 해 준다. 동시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 역시 매우 고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 실시되는 다문화교육의 시행에 대한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적극적 참여가 기대되고 그 교육적 효과 역시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시범학교 운영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의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 조사를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구 분	조 사 내 용	대 상	인 원	방 법	시 기
학 생	·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조사	1,2학년	426명	설	2007.3
교 사	· 다문화교육 활동의 적정성 조사	본교교사	95명	문	
학부모	· 다문화교육 활동 결과 조사	본교학부모	410명	지	

가. 학생 설문 분석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N= 468

문 항	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저 그렇 다	그렇 지 않다	매우 그렇 지 않다	분석
		%	%	%	%	%	
1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6	53	31	8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2	다문화교육활동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가정, 새터민 및 그 가족들과 서로 이해하고 상생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1	5	8	74	12	다문화교육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
3	다문화사회에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38	42	13	1	다문화사회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표 4】 다문화교육 활동의 효율성 조사 N= 468

문 항	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저 그렇 다	그렇 지 않다	매우 그렇 지 않다	분석
		%	%	%	%	%	
4	교육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 활동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21	61	10	6	교육과정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 미흡함
5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다문화 교육내용이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16	67	9	4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나 미흡함
6	교과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다문화와 관련된 수업연구가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31	51	10	4	다문화관련 수업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나 미흡함
7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이루어진 각종 체험활동이 다문화의식을 확립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20	61	10	6	교육과정을 통한 체험활동이 필요성을 느끼나 미흡함

【표 5】 다문화교육의 결과 조사 N= 468

문 항	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저 그렇 다	그렇 지 않다	매우그 렇지 않다	분석
		%	%	%	%	%	
8	다문화교육이 국제이해에 대한 지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33	48	11	6	다문화교육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함
9	다문화교육이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신장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1	10	68	16	5	다문화교육이 이해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인식함
10	본교의 다문화 정책연구 학교 운영이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4	14	60	16	6	다문화교육이 글로벌 시민자질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라. 설문 결과 분석의 시사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응답에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라는 인식과 다문화교육의 대상과 다문화교육의 취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다문화교육 활동의 효율성 조사에서는 교육과정 중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학교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수업연구, 교사연수,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학교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 다문화의식을 확립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문화교육의 결과 조사에서는 다문화교육이 국제이해에 대한 지식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였으며, 문화의 다양성 수

용과 이해력,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신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본교의 다문화 정책연구학교의 운영이 글로벌 시민자질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시범운영 과제 실행

1. 대상 : 양지고등학교 전교생 1,813명
2. 기간 : 2007년 3월 1일 ~ 2008년 2월 29일(1년간)
3. “운영과제 1”의 실행

다문화 교육을 위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한다.

가. 학생-학부모-교사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 1) 학생 연수 시행
- 2) 학부모 연수 시행
- 3) 교사 연수 시행
- 4) 교사 개인 연수 시행
- 5) 외부강사 초빙 연수 시행

나. 다문화 체험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 1) 다문화교육실 조성 및 운영
 - 2) 다문화 학급 환경 구성을 위한 “다문화란” 게시판 구성
- 다. 사이버 다문화체험을 위한 학교 홈페이지 구축
- 1)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홈페이지 구축
 - 2)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다문화교육 자료의 탑재
 - 3) 홈페이지의 활용



<국제이해교육연구회 회장 경혜영>



<국제이해교육학회 이사 김갑성>

4. “운영과제 2”의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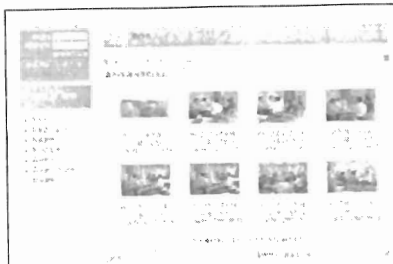
다문화 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한다.

가.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구안 및 적용
나. 계발활동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구안 및 적용
다. 자치·적응활동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구안 및 적용
라. 교과활동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구안 및 적용

- 1) 다문화교육 관련 수업연구의 시행
- 2) 교과와 교육활동 시간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시행
- 3) 다문화교육 학습지도안 연간지도계획표 작성
- 4) 다문화교육 연간 수업장학의 시행

마. 독서활동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안 적용

- 1) 아침 독서활동 시간 운영
- 2) 다문화 관련 학교 신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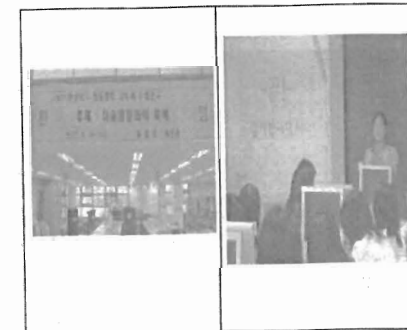
<학교 홈페이지 구성(계획과 실천란)>



<원어민 강사(Shawn Mckey)초청 수업>



<학급 환경정리(다문화게시판)>



<안산시 공개 수업연구(다문화교육)>

5. “운영과제 3”의 실행

체험활동 프로그램 적용을 통하여 글로벌 시민자질을 내면화한다.

가.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자질의 내면화

- 1) 동아리 활동 조직

- 1)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문화교육 교수-학습지도안의 개발

나. 외국인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자질의 내면화

- 1) 'YF해외봉사단' 체험 학습 시행
- 2) '아시아 체험교실'의 시행
- 3) '세계 음식 문화 체험활동'의 시행
- 4) '외국인과 함께하는 과학부스'의 운영

다.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운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자질의 내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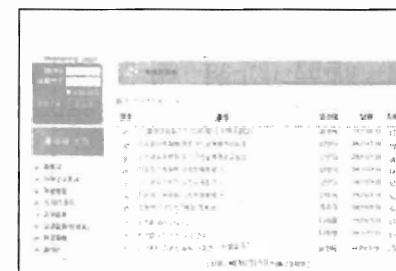
라. '새터민 청소년 돕기 운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자질의 내면화

마. 학생 축제 문화 체험을 통한 글로벌 시민자질의 내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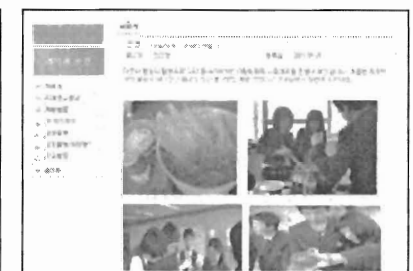
- 1) '교내 체육대회'를 통한 다문화교육 시행
- 2) '한빛제'를 통한 다문화교육 시행

바.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축제참여를 통한 글로벌 시민자질의 내면화

사. 중국 자매학교와의 교류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자질의 내면화



<홈페이지의 동아리 활동란>



<아이엠 동아리 활동 장면>
(이탈리아 스파게티 만들기)

IV. 운영의 결과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실행해 온 세 가지 중점 사항이 학

생, 교사, 학부모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2】 운영 결과 검증 내용 및 도구

평가 영역	평가 도구	대 상	시 기
주제별 다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변화	자작 설문지를 통한 백분율로 비교분석	교 사 학 생 학부모	2007. 03 2007. 10

설문지와 실태조사의 평가 문항은 자체 제작 후 동료교사의 검토로 신뢰도를 높이고, 조사 후 평가 분석은 백분율을 활용한 전·후 비교하여 본 연구과제의 평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학생 설문 결과 분석

【표 23】 다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N= 468

구 분	문항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9	2	29	6	248	53	143	31	39	8
		후	94	20	269	58	67	14	38	8	0	0
		증감	+85	+18	+240	+52	-181	-39	-105	-23	-39	-8
2	다문화교육활동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가정, 새터민 및 그 가족들과 서로 이해하고 상생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전	3	1	23	5	37	8	348	74	57	12
		후	91	19	305	65	49	10	23	5	0	0
		증감	+88	+18	+282	+60	-12	-2	-325	-69	-57	-12
3	다문화사회에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26	6	180	38	196	42	63	13	3	1
		후	163	35	280	60	16	3	9	2	0	0
		증감	+137	+29	+100	+22	-180	-39	-54	-11	-3	-1

【표 24】 다문화교육 활동의 효율성 조사 N= 468

구 분	문항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4	교육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 활동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9	2	96	21	286	61	48	10	29	6
		후	48	10	277	59	121	26	17	4	5	1
		증감	+39	+8	+181	+38	-165	-35	-31	-6	-24	-5
5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다문화 교육내용이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17	4	77	16	312	67	41	9	21	4
		후	43	9	286	61	87	19	39	8	13	3
		증감	+26	+5	+109	+45	-225	-48	-3	-1	-8	-1
6	교과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다문화와 관련된 수업연구가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18	4	143	31	239	51	49	10	19	4
		후	43	9	217	46	162	35	39	8	7	1
		증감	+25	+5	+74	+15	-77	-16	-10	-2	-12	-3
7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이루어진 각종 체험활동이 다문화의식을 확립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11	2	94	20	286	61	48	10	29	6
		후	97	21	252	54	91	19	23	5	5	1
		증감	+86	+19	+158	+34	-195	-42	-25	-5	-24	-5

【표 25】 다문화교육의 결과 조사 N= 468

구 분	문항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8	다문화교육이 국제이해에 대한 지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12	3	153	33	223	48	53	11	27	6
		후	25	5	242	52	161	34	28	6	12	3
		증감	+13	+2	+89	+19	-62	-14	-25	-5	-15	-3
9	다문화교육이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신장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5	1	46	10	319	68	75	16	23	5
		후	28	6	236	50	154	33	35	7	15	3
		증감	+23	+5	+190	+40	-165	-35	-40	-9	-8	-2
10	본교의 다문화 정책연구 학교 운영이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19	4	65	14	279	60	76	16	29	6
		후	45	10	262	56	91	19	48	10	22	5
		증감	+26	+6	+197	+42	-188	-41	-28	-6	-7	-1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주제별 다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자질 함양」이라는 주제로 1년(2007. 3. 1 ~ 2008. 2. 28) 동안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다문화교육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학생연수, 학부모연수, 교사연수, 교사개인연수, 외부강사 초빙연수를 시행하고 외부전문가의 중간점검을 받았으며, 다문화 체험활동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문화교육실을 조성하고 학급에 '다문화란' 게시판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이버 다문화체험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다양한 다문화교육 자료를 탑재하여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 나. 다문화 체험활동을 위한 학습지도안 개발과 적용을 위해 창의적 재량활동·계발활동·자치·적응활동 시간을 활용하였으며 다문화교육 관련 수업연구를 시행하고, 교과목의 교육활동 시간에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다문화교육 학습지도안 연간계획표를 작성하고, 다문화교육 연간 수업장학을 시행하였으며, 아침 독서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다문화관련 독서활동을 하였다.
- 다. 체험활동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글로벌 시민자질의 내면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시행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문화교육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하고, 외국인과의 함께하는 체험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하여 'IYF 해외봉사단 체험학습', '아시아체험교실', '외국인과 함께하는 과학부스'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운동', '새터민 청소년 돕기운동'을 시행하고, '교내 체육대회'와 '한빛제'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의 운동, 민속음식, 민속음악을 체험하게 하였으며, 외국인과의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축제에 참여하고, 중국 자매학교와의 교류활동을 하였다.

2. 제언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별 체험학습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반화와 계속적인 피드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가. 다문화를 인식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평등과 관용과 이해를 통해 상생을 하게 하는 다문화에 대한 의식형성은 내면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형성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것이다. 정책연구학교의 운영 기간이 1년이고,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른 8개월의 기간 동안 의식의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정책연구학교 운영의 가시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나. 현행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고찰하여 보았을 때, 교육과정외의 행사를 통해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이에 대한 적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체험활동을 시행하는 데에는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태도 함양에 더 도움이 되었으나, 이러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보의 공유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라. 다문화교육을 통한 다문화의식 형성에는 이론적인 지식탐구

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체험적인 학습이 더 효과적이었으며, 이러한 체험활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다문화교육의 토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문화에 대한 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문화를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시민윤리, 서울:교육인적자원부, 2003
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시민윤리 교사용 지도서, 서울:교육인적자원부, 2003
3.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2006교육시책 현장연구제 연수, 수원: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2006
4.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여름호, 2006
5. 경남창원여자고등학교, 『특별활동을 통한 국제이해력 증진』, 경상남도교육청 지정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2001
6. 부산국제고등학교, 『다양한 국제문화 이해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국제 이해력 신장』, 부산시교육청 지정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2002
7. 용호중학교, 『주제별 체험활동을 통한 지구촌 시민의식 함양』, 부산시교육청 지정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2006
8.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2004
9. 한명희, “<함께 사는 세상>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중학생들의 국제 이해력 증진방안”, 부산교육 연구 실천사례 연구 보고서, 2005

10. 김선경, “국제이해교육이 타문화 이해와 지구공동체 의식 함양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연구 보고서, 2005
11.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맛있는 국제이해교육, 2006
12.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교실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2007
13. 내정중학교, 다양한 동아리 체험 활동을 통한 귀국학생의 학교 적응 및 국제성 신장, 교육인적자원부 과제수행 경기도교육청 지정 귀국학생 교육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2004
14. 부산국제중학교, 다양한 국제문화이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제이해력 신장, 부산광역시교육청지정 국제이해교육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2003
15. 양건열,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16. 전북장수초등학교(2006). 국제결혼 가정 도움 계획서.
17. 김현덕,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 2007

경제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

김은희 | 서울자운초등학교 교사(kehsara@hanafos.com)

7차 교육과정에서 '국제이해교육'이 창의적 재량학습 과목의 하나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학교에 따라 담당교사의 재량으로 지도를 하기에는 제한이 많다. 본 연구는 2006년 서울상경초등학교 계발활동의 한 부서에서 지도한 실천사례이다. 그러나 연 12회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일이 무리한 일이어서 경제라는 소재를 통하여 국제이해교육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경제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데 목적을 두었다.

I.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미래 사회는 정보화, 지식화, 고도 기술화, 다양 다원화, 세계화, 개방화, 인간화의 추세를 지향하는 사회라고 한다. 세계가 '지구촌화' 되어가는 미래의 삶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세계시민으로서 자기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에는 어딘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생각과 가치기준이 다르듯, 이 세계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그런 동일성을 체험할 수도 있고, 우리와는 다른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

유네스코의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는 전 세계가 21세기에 추구

해야할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교육’(Learning to Live Together)을 하나의 중심축으로 삼아야한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¹⁾ 우리나라의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을 창의적 재량학습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국제이해교육’이란 것이 너무나 범위가 넓고 다양한 것이어서 어느 과목에나 접합시킬 수도 있으며, 또 그 내용도 무한하여 지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본교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재량활동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 연구자는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2년과 2003년에 방과 후 동아리 활동으로 ‘세계여행’ 부서를 운영했으며, 2005년에는 계발활동의 한 부서로서 ‘세계여행’을 지도한 바 있다. 지난 1년 동안 ‘세계여행’ 계발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하는 가운데 보다 넓은 세계로 관심을 넓히게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으나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더 많았다. ‘국제이해교육’이 학교의 상황과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지만 연 12회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일이 무리한 일이어서 1년에 1번씩 주제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본교는 2005년부터 ‘소비자 경제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학교 재량활동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이해교육’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점을 고려해보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경제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본교는 작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서 재량시간에 격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가 더 높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지난해의 아쉬웠던 점을 참고로 하여 준비를 많이 한 덕분에 올해의 ‘경제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은 어느 때보다도 신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었다.

1) 이삼열 외 (2003), 세계화시대의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p. 11.

II.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1.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 가. 계발활동 조직 : 서울상경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15명
- 나. 계발활동 활동 시간 : 목요일 13:10~14:40 (연 12회)
- 다. 계발활동 활동 기간 : 2006년 3월 3일~2007년 2월 29일
- 라. 계발활동 장소 : 1-6 교실

2. 처음의 모습입니다.

계발활동 ‘세계여행’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자작 설문지를 통하여 사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알게 되었다.

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5나라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적어보라는 질문에 모두 18나라의 이름을 적었으나 5나라의 이름을 다 쓰지 못한 경우가 13.3%였으며, 나라의 이름을 잘못 쓴 경우도 20%나 되었다. 학생들이 많이 쓴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태국 등의 순으로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접하는 정보가 아시아의 주변 나라와 미주, 유럽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은 대부분 간단히 적었는데 그중 32%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

나. 응답자의 93.3%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잘 사는 나라라고 응답을 하였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을 예로 든 학생이 35.7%, 특정한 나라와 비교해서 더 잘 산다고 생각기 때문이라고 응답을 한 학생이 42.9%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잘 산다고 생각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은 21.4%에 불과했다.

다.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5나라를 적어 보라는 질문에서 총 11나라를 적었는데 그중 6.7%는 나라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다. 가장 많이 적은 나라로는 미국이

20%, 일본이 18.7%, 중국이 17.3%, 러시아가 12% 로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 외 북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프랑스, 스위스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제협력관계로 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라. 다른 나라에 대하여 알게 되는 방법으로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46.6%,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40%,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6.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다양한 도서들이 많이 등장하고, 텔레비전의 각종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방법으로 외국에 사는 친척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는 경우도 6.7%였다.

마.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3%에 불과하였으며 여행한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었다. 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본교의 학생들에게는 아직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바.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나라는 총 7개 국가로 중국, 미국, 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스위스, 그리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아메리카라고 응답한 학생도 1명이 있었다. 그 나라에서 하고 싶은 일로는 유적지를 방문하거나 음식을 그 나라 먹어보고 싶다는 등 단순한 관광이 목적인 경우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나라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보고 싶다는 경우가 26.7%, 그 나라에서 돈을 벌겠다는 경우가 13.3%, 자원을 개발하고 싶다는 의견도 13.3%로 나타났다.

사. 개발활동 '세계여행'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나라를 3나라만 적어 보라는 질문에 총 10개 나라로 응답을 하였는데 미국이 20%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일본, 프랑스가 13.3%, 그 외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네덜란드, 캐나다가 각각 6.6%로 나타났다.

아. '세계여행' 동아리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부분은 역사와

문화가 46.6%로 가장 관심이 높았으며 경제활동도 26.7%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지난 1년 동안 본교가 경제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경제교육을 실시했던 결과라고 보여 진다. 그 외 특이한 풍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0%였으며 자연환경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7%에 불과했다.

3. 이런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국제이해교육을 위해서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발한 초·중등학교의 재량학습 교육과정을 참고로 하였다. 본교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경제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소비자 경제교육 중심이어서 경제교육의 내용영역이 '경제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 활동에는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교육의 내용은 NCEE(전미경제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경제개념을 참고로 하였다.

가. 국제이해교육의 성격

국제이해교육은 모든 인간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 문화와 생활습관을 바르게 이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와 평등의 가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세계를 일구어 내는 세계시민의 의식과 자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이해교육은 창의적 재량학습 과목의 하나로 독립된 교과목으로 학습할 수도 있고, 사회과 과목 등과 접합시켜 통합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와 현실적 요구를 감안하여 볼 때, 그 내용과 구조, 학습과정을 다문화 이해 영역, 세계화 문제 영역, 인권 존중 영역, 평화로운 세계 영역, 지속 가능한 발전 영역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5가지 영역은 학습에 있어서 독립된 영역이기도 하지만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통합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이 영역들은 범교과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기존

의 교과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도 있고, 국제이해교육의 주제나 쟁점으로 재초점화하여 심화학습을 통해 다룰 수도 있다.

나. 초등학교 국제이해교육의 목표

초등학교에서의 교육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여러 상식과 가치 및 태도를 느끼며 배우게 하는데 있다. 5가지 영역별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타문화 이해

가) 세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의식주생활, 언어와 종교, 인사예절 등에는 서로 다른 문화가 있음을 알게 하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한다.

나) 여러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특수한 자연환경 및 역사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수용의 태도를 갖는다.

다)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를 바로 알고 세계 문화와 더불어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2) 지구촌의 삶

가)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점점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이해한다.

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모든 나라들은 상호 교류의 증가로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이해한다.

다) 지구촌 가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하고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와 원칙이 있음을 이해한다.

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지구촌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인식과 태도를 갖는다.

3) 인권존중

가) 모든 인간은 불래적인 존엄성을 가지며 인간답게 살 기본 권리가 있음을 깨닫는다.

나) 인간은 성, 인종, 피부색, 장애, 출신지역, 언어,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받아서 안 됨을 이해한다.

다)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다.

라) 외국인도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외국인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4) 평화만들기

가) 학생들 자신이 의식, 무의식적으로 이미 폭력문화에 익숙해져 있음을 경각시키고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나) 가정과 학교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는다.

다)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국가와 민족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참상을 알고,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을 이해하고, 세계평화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5) 환경보전

가) 자연과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임을 깨닫는다.

나)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안다.

다)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의 특성과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알아본다.

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인간 욕구의 절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이해한다.

마) 자연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관계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바) 기아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태도를 갖는다.²⁾

다. 경제교육의 핵심내용

NCEE (전미경제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경제개념은 다음과 같다.³⁾

뿌리의 경제 (기초개념)	나무의 경제 (미시경제)
1) 희소성	7) 시장과 가격
2) 기회비용과 상충관계 (한계원리, 비용, 편익)	8) 수요와 공급
3) 경제체제 (시장경제, 계획경제)	9) 경쟁과 시장구조 (경쟁, 독점)
4) 경제제도와 유인	10) 소득분배 (공정분배, 불공정분배, 빈곤)
5) 교환, 화폐, 상호의존	11) 시장의 실패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공공재)
6) 전문화, 비교우위, 노동의 분업, 생산성	12) 정부의 역할
숲의 경제 (거시경제)	나무의 경제 (국제경제)
13) 국내총생산	20) 절대 및 비교우위, 무역장벽 (비교우위, 자유무역, 보호무역)
14) 총공급 (저축, 자본)	21) 국제수지와 환율 (국제수지, 환율)
15) 총수요	22) 국제적 성장과 안정 (경제통합, 경제성장)
16) 실업	
17)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18) 금융정책(은행, 이자, 주식)	
19) 재정정책(재정, 조세, 사회보장)	

4. 2006년 '세계여행'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창의성과 정보능력을 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초를 닦아

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전개서, pp 15-44

3) 교사 경제교육 연수자료 (2005), 학교 경제교육, 어린이경제신문, p 5

나가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각자의 개성과 소질을 지속적으로 계발, 신장하는 것이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⁴⁾

따라서 2006년 계발활동 '세계여행'에서는 위와 같은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하는 가운데 민주시민,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목표를 설정하였다.

가. 경제라는 소재를 통하여 국제이해교육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나.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들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을 이해한다.

다. 국제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기른다.

5. 실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올해의 활동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실천내용을 선정하였다.

활동 주제 경제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	
실천과제 1 세계를 여행하며 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 실천과제 1의 실천내용 가. 국제이해교육 관련 활동 중에서 경제 관련요소를 추출한다. 나. 즐겁게 활동하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실천과제 2 이 세계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알고,	☞ 실천과제 2의 실천내용 가.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나.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4) 교육인적자원부 (2001), 초등학교 교과용 지도서 계발활동,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p 36

보다 넓은 세계로 관심을 넓힌다.	거나 제작하여 활용한다. 다. 시사성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시기에 적절하게 지도한다.
실천과제 3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생활에 대해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기른다.	실천과제 3의 실천내용 가. 지도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나. 관련 서적과 인터넷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다. 자기주도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알맞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III.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1. 실천과제 1의 실천내용

[실천과제]

1. 세계를 여행하며 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가. 국제이해교육 관련활동 중에서 경제 관련 요소를 추출하였다.

1) 국제이해교육의 5가지 영역을 경제와 관련지어 고루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매우 많았다. 그러나 5가지 영역은 학습에 있어서도 독립된 영역이기도 하지만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통합된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활동주제를 선정하였다.

2) 국제이해교육의 5가지 영역과 관련된 활동주제

국제이해교육	경제 관련 요소	활동주제	지도시기
타문화 이해	경제제도와 유인	개발활동 조직	1주
	경제체제	우리가 사는 세계	2주
	경쟁과 시장구조	한류열풍	9주
지구촌의 삶	교환, 상호의존	무역	4주

	화폐, 환율	세계의 화폐	7주
	시작과 가격	햄버거 지수	8주
인권존중	소득분배	잘 사는 나라	11주
	절대 및 비교우위	나의 세계 일주	12주
평화 만들기	경쟁과 시장구조	월드컵 경제	6주
	국제적 성장과 안정	국제기구	10주
환경보전	정부의 역할	황사현상	3주
	수요와 공급	에너지	5주

3) 2006학년도 세부 활동계획

차 례	일 시	국제이해 교육의 영역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자료
1	3.16	타문화 이해	개발 활동 조직	· 개발활동 조직 및 안내 · 개발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지 작성 · 세부분카드 놀이를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모습 살펴보기	사전 설문지 세계지도 세부분카드
2	3.30	타문화 이해	우리 가 사는 세계	· 5대양 6대주 찾아서 표시하기 · 대륙별 나라 익히기, 나라 이름 말하기 게임하기 · 지형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점 살펴보기 · 지도에서 사용되는 기호 익히기 · 통계자료 활용방법을 익히고 '세계 최고' 찾기 게임하기	백지도 사회과부도 통계자료 학습지
3	4.13	환경 보전	황사 현상	· 황사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 알아보기 · 황사가 생기는 까닭과 국가 간에 서로 협조해야 할 점 토의하기 · 미래의 친환경산업 알아보기	세계지도 사회과부도 신문자료 학습지
4	4.27	지구촌의 삶	무역	·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의 원산지 알아보기 ·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원산지 알아보기 · 우리나라의 무역현황 알아보기	세계지도 사회과부도 학습지
5	5.11	환경 보전	에너지	·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 알아보기 · 최근 몇 년간의 원유가격 변동 알아보기 · 전 세계의 주요 산유국 알아보기 · 고유가시대에 우리의 대처방안 알아보기	세계지도 인터넷 자료 학습지

6	5.25	평화 만들기	월드컵 경제	- 월드컵 결승 진출국 중에서 내가 응원할 나라 정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 월드컵 경기장에 등장하는 광고판 살펴보기 - 광고의 효과 알아보기	세계지도 사회과부도 인터넷 자료 월드컵 홍보자료 학습지
7	9.7	지구촌의 삶	세계의 화폐	- 세계의 화폐 수집하여 분류하기 - 세계의 화폐단위 알아보기 - 세계의 화폐에 얽힌 이야기 알아보기 - 환율에 대하여 알아보기	세계지도 사회과부도 신문자료 학습지
8	9.28	지구촌의 삶	햄버거 지수	- 같은 물건을 각각 다른 가게에서 구입하여 가격 비교하기 - 각 나라의 햄버거, 초코파이, 커피, 휴대폰의 가격 알아보기 - 나라마다 다른 까닭 알아보기	세계지도 사회과부도 인터넷 자료 학습지
9	10.12	타문화 이해	한류 열풍	- 한류를 주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알아보기 -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기 - 문화상품의 부가가치 알아보기 - 앞으로 개발하여야 할 문화상품에 대해 생각해보기	세계지도 사회과부도 신문자료 동영상 자료 학습지
10	10.26	평화 만들기	국제 기구	- 부산APEC의 성과 알아보기 - APEC의 회원국 분포현황 알아보기 -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알아보기 -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세계평화를 위한 편지 쓰기	세계지도 사회과부도 인터넷, 자료 신문자료 학습지
11	11.9	인권 존중	잘 사는 나라	-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지 토의하기 - 통계자료로 각 나라의 국민소득 살펴보기 -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문제점 알아보기 - 우리나라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세계지도 사회과부도 통계자료 학습지
12	11.23	인권 존중	나의 세계 일주	- 각 나라의 관광산업 현황 알아보기 - 우리나라의 관광산업과 개선방향 토의하기 - 나의 세계 일주 계획 세우기 - 각 나라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자세히 계획세우기 - 자신의 세계 일주 계획을 발표하고 친구들과 비교해보기	'80일간의 세계일주' 책 세계지도 사회과부도 지구본 학습지

나. 즐겁게 활동하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1) 타문화 이해 영역

학습 주제	한류열풍		활동 시기	9주
학습 목표	1)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음을 알고, 타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2) 문화상품이 갖는 부가가치를 이해한다.			
학습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자료
도입	동기 유발	● 가수 비의 최근 활동모습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여 주기 - 가수 비의 활동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말하기 ● 비의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알아보기 ● 학습목표 제시	10'	신문 자료
전개	학습 목표 제시	1)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음을 알고, 타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2) 문화상품이 갖는 부가가치를 이해한다.	20'	16칸 빙고 판
	활동1	● 빙고게임 -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쓰기 - 그들의 활동내용을 들으며 이름 맞추기 빙고게임하기	20'	
	활동2	● 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알아보기 - 각자의 경험에 따라 알고 있는 사람들 말하기 - 그들을 보았을 때의 느낌과 차이점 말하기 -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진보기	20'	
	활동3	● 그런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알아보기 - 그들이 얻는 효과 말하기 - 그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말하기 ● 얼마일까요? -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영화 '쥬라기공원'이 벌어들인 수익은 자동차 몇 대를 판 돈과 같을지 추측하여 말하기 - 문화상품이 갖는 부가가치 이해하기	20'	
정리	내면화	●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개발할 수 있는 문화상품 알아보기 - 개발이 가능한 문화상품 생각해보기	10'	학습지

2) 지구촌의 삶

학습 주제	햄버거 지수		활동 시기	8주
학습 목표	1) 모든 나라들은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이해한다. 2) 나라에 따라 물건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바른 소비태도를 갖는다.			
학습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자료
도입	동기 유발	● 시장보기 - 사다리타기로 모둠별로 상품을 구입할 장소 정하기 - 서로 다른 가게에서 동일 제품의 음료수를 구입하기	20'	음료 수 구 입 비
전개	학습 목표 제시	● 학습목표 제시 1) 모든 나라들은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이해한다. 2) 물건값이 나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바른 소비태도를 갖는다.		
	활동1	● 얼마일까요? - 다른 모둠이 구입한 음료수의 가격 추측하기 - 맞춤 모듬에게 음료수 따라주기 - 5군데의 가격 비교하기 - 가게의 규모와 서비스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을 이해하기	15'	학 습 지
	활동2	● 가격에 따라 나라이름 늘어놓기 게임 - 6나라 찾아서 나라이름 붙이기 게임 - 모듬별로 어느 나라에서 초코파이가 가장 싼지 나라이름을 차례대로 늘어놓기	15'	세 계 지도 포 스 트 잇
정리	활동3	● 나라마다 제품의 가격이 다른 까닭 알아보기 - 햄버거, 커피 가격 비교하기 - 나라마다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가와 인건비, 세금 등이 다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을 이해하기 - 나라마다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제품 찾아보기	15'	인 터 넷 자 료, 신문 자료
	내면 화	● 상품구입계획 세우기 - 필요한 학용품이나 식품 등을 구입하기에 적당한 가게 찾기 - 필요한 양과 구입에 따른 교통비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입계획 세우기	15'	

3) 인권존중

학습 주제	잘 사는 나라		활동 시기	11주
학습 목표	1) 모든 인간은 피부색, 출신지역, 종교,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됨을 이해한다. 2)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태도를 갖는다.			
학습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자료
도입	동기 유발	● '잘 사는 나라', '잘 살지 못하는 나라'를 찾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 말하기	10'	
전개	학습 목표 제시	● 학습목표 제시 1) 모든 인간은 피부색, 출신지역, 종교,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됨을 이해한다. 2)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태도를 갖는다.		
	활동1	● 나라 찾기 게임 - 통계자료를 보고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빨리 찾기 - 세계지도에서 그 나라 빨리 찾기 - 그 나라들의 국민소득이 높은 까닭 알아보기	15'	통계자 료 세계지 도
	활동2	● '잘 사는 나라'란? - '잘 사는 나라'란 어떤 나라를 이야기인지 말하기 - 국민들이 생각하는 행복지수 알아보기 -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나라'란 어떤 나라인지 말하기	15'	신문 자료
	활동3	● 3부분카드 맞추기 게임 - 교사의 설명을 듣고 그에 맞는 사진찾기 게임하기 -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알아보기 -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알아보기 -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알아보기	15'	3부분 카드 사진자 료
정리	활동4	● 국제적인 구호단체 - 국제적으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 알아보기 - KOICA가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 알아보기	15'	
	내면 화	● 내가 할 수 있는 일 - 어려운 나라들을 돕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해보기	10'	

4) 평화 만들기

학습 주제	월드컵 경제		활동 시기	6주
학습 목표	1)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들을 이해하고, 세계평화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2) 월드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들을 찾을 수 있다.			
학습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자료
도입	동기 유발	● 월드컵 퀴즈 - 월드컵의 이상과 목적 알기 ● 월드컵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알아보기	10'	사진 자료
전개	학습 목표 제시	● 학습목표 제시 1)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들을 이해하고, 세계평화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2) 월드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들을 찾을 수 있다.		
	활동1	● 2006 독일 월드컵 본선 참가국 맞추기 게임 - 2모둠으로 나누어 포스트잇에 32개의 참가국 이름 쓰기 - 세계지도에서 그 나라의 위치를 찾아 붙이며 확인하기	20'	세계 지도
	활동2	● 내가 응원할 나라는? - 나라이름 맞추기 게임을 통하여 내가 응원할 나라 정하기 - 응원할 나라를 대륙별로 골고루 포함되도록 선정하기 - 내가 응원할 나라의 게임결과 예측해보고 그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20'	포스트 잇
정리	활동3	● 월드컵의 경제 효과 - 월드컵과 관련한 광고 찾아보기 -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말하기 - 월드컵 개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 알아보기	15'	학습지
	내면 화	● 축구를 통해 일어난 분쟁과 평화 이야기 듣기 - 1970년,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전쟁, 홀리건들의 난동 - 1996년 축구를 통한 나이지리아의 종족간 화해 ● 평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해보기	15'	신문 자료

5) 환경보전

학습 주제	에너지		활동 시기	5주
학습 목표	1)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의 진행과정과 그 심각성을 이해한다. 2) 고유가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아본다.			
학습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자료
도입	동기 유발	● 대통령 해외순방의 주요내용 알아보기 -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찾아보기 -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방문내용 알아보기 ● 에너지자원의 중요성 알아보기 ● 학습목표 제시	15'	인터넷 자료
전개	학습 목표 제시	1)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의 진행과정과 그 심각성을 이해한다. 2) 고유가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아본다.		
	활동1	● 얼마일까요? - 2002년의 원유가격을 듣고 오늘의 원유가격 추측해서 화이트보드에 적기 - 미국의 연간 원유사용량을 듣고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사용량을 추측해서 화이트보드에 적기 - 원유가격 상승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15'	화이트 보드, 인터넷 자료
	활동2	● 전 세계의 주요산유국 알아보기 - 원유가 많이 생산될 곳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이름 10개씩 포스트잇에 적기 - 생산량 1위를 쓴 학생 20점, 2위는 19점 등으로 점수를 정하면서 주요산유국 확인하기 - 세계지도에 주요산유국의 이름 붙이기	20'	포스트 잇 세계지 도
정리	활동3	●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대처방안은? -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해 알아보기 - 해외의 자원개발 상황 알아보기	20'	인터넷 자료
	내면화	● 현재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말하기 -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말하기	10'	

2. 실천과제 2의 실천내용

실천과제 2

이 세계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알고 보다 넓은 세계로 관심을 넓힌다.

가.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1) 3부분 카드

가) 3부분 카드는 사진카드, 나라 이름 카드, 설명카드를 1세트로 하는 것으로 각각의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짝을 찾아 맞추는 놀이를 하는 가운데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나) 사진카드에는 각 나라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사진을 구해서 붙이고, 설명카드에는 그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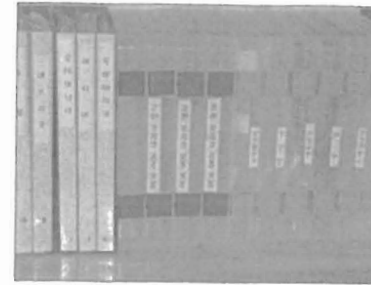
다) 대륙별로 자료의 바탕색을 달리 하여 찾기 쉽도록 하였으며 대륙별로 상자에 넣어두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보충하였다.

<표 1> 대륙별 3부분 카드 제작 현황

대륙명	자료의 바탕 색	제작한 자료의 수
아시아	노랑	41세트
유럽	빨강	35세트
아프리카	녹색	26세트
오세아니아	미색	18세트
북아메리카	주황	21세트
남아메리카	분홍	44세트

라) 3부분 카드는 개발활동 초기에 대륙별로 나라 이름을 익히는 활동 뿐 아니라 각종 활동 중에 수시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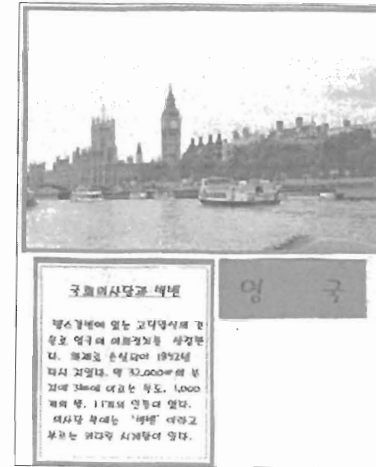
마) 초기에는 교사가 제작한 자료가 대부분이었으나 활동이 진행되어 가면서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로 직접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사진 1> 3부분 카드 상자



<사진 2> 3부분 카드 활용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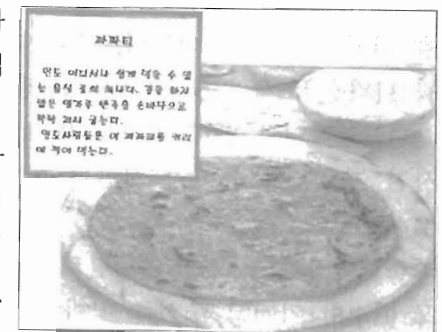
<사진 3> 3부분 카드의 예 - 사진카드, 설명카드, 나라 이름카드

2)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카드

가) 인터넷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음식의 사진과 음식에 대한 설명카드를 만들어 따로 분리하여 코팅하였다.

나) 음식 카드는 음식의 사진과 설명카드를 맞추는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다) 현재 총37세트의 자료가 제작되었으며 별도의 상자에 따로 넣어두고 학생들의 놀이 자료로도 수시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 4> 음식 카드와 음식 설명카드

나.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시중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1) 세계 여러 나라의 사진, 엽서, 지폐, 동전 수집

가) 세계 여러 나라의 사진, 엽서, 지폐, 동전 등을 따로 상자에 모아 놓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폐와 동전은 7주째 활동 <세계의 화폐 이야기>에서 주 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자료는 대부분 교사가 수집해 두었던 것이지만 계발활동이 진행되면서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점차 자료의 양이 늘어났다.

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엽서 1상자에 총 138종을 수집하였다.

라) 세계 여러 나라의 지폐와 동전 1상자에 총 73종을 수집하였다.

마) 세계 여러 나라의 사진 1상자에 총 55종을 수집하였다.



<사진 5> 세계 여러 나라의 엽서와 동전

2)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참고 서적과 자료 수집

가)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참고 서적과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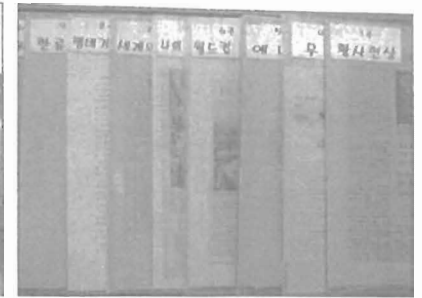
나) 참고 서적이거나 자료는 각 나라의 박물관 등에서 직접 구입을 하거나 각국의 대사관, 문화원, 관광청 등에서 수집한 것으로 각 나라를 소개 하고 있는 자료 총 86종이 수집되었다.

다) 한국어로 안내 책자도 있고, 외국어로 된 것도 있지만 주로 사진 자료여서 동아리 시간에 필요한 사진만 골라서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라) 수집한 자료는 대륙별로 분류하여 상자에 넣어두고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6> 대륙별 참고자료 상자



<사진 7> 일반 신문기사 스크랩

다. 활동주제에 적합한 뉴스를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1) 활동주제에 적합한 뉴스 활용

가) 활동주제와 관련이 있는 뉴스 중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관심을 가질만한 뉴스를 활용하였다.

나) 올해 뉴스를 활용하였던 활동으로는 3주째 <황사현상>에서 황사현상으로 인한 피해상황 보도, 5주째 <에너지>에서 대통령의 에너지 외교를 위 한 해외순방 보도, 6주째 <월드컵 경제>에서 월드컵과 관련한 보도, 10 주째 <한류열풍>에서 한류를 이끄는 연예인들의 활약에 대한 보도 등이 있다.

2) 일반 신문 기사 활용

가) 일반 신문에 사진과 함께 나온 기사 중에서 5, 6학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골라서 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신문에 소개되는 경제에 대한 기사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내용을 표시하여 주제별로 스크랩을 하여 학생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어린이 신문 기사 활용

가) 어린이경제신문의 기사 중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면에 포스트잇에 제목을 써서 붙여두었다.

나) 교실에 비치해두고 활동 중에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

료를 찾아보는 데에 활용하였다.



<사진 8> 어린이 신문 활용 모습



<사진 9> 어린이 신문 활용 모습

3. 실천과제 3의 실천내용

실천과제 3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생활에 대해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기른다.

가. 여러 가지 지도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다.

- 1) 지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호를 익혀 지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다.
- 2) 지도에서 육지의 높이나 바다의 깊이를 나타내는 방법을 이해하고, 지형도를 통하여 각 지역의 특징을 찾아내는 방법을 익혔다.
- 3) 자원 분포도, 산업분포도, 인구분포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도를 활용하여 각 나라에 대한 정보로 활용하였다.
- 4) 초등학교 사회과부도의 주요 국가 일람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국명, 수도, 면적, 인구, 인구밀도, 1인당 국민소득, 주요 자원, 무역액 등으로 그러한 통계자료에서 단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읽는 방법을 익혔다.

<표 2> 국가일람표 활용의 예(대한민국)

2000년

	수도	면적 (천 km ²)	인구 (만명)	인구 밀도 (명/km ²)	1인당 국민소득 (달러)	무역액(억 달러)	
						수출	수입
통계 자료	서울	99	4,728	467	8,581	1,437	1,198
읽는 방법	서울	99,00 0km ²	47,280,0 00명	1km ² 당 467명	8,581 달러	143,700,000 ,000 달러	119,800,000 ,000 달러

나. 국제이해교육과 경제교육과 관련한 참고 서적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았다.

- 1) 국제이해교육 관련서적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았다.

가) 본교 도서관에 있는 국제이해교육 관련서적 총 56종을 소개하고 도서관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나)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도서는 대여하여 교실에 비치해 놓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활용하였다.

- 다) 아래의 표는 올해 유용하게 활용하였던 도서목록이다.

<표 3> '세계여행'에서 활용하였던 도서목록

서적명	지은이	출판사
세계의 내 친구들	유니세프	삼성출판사
세계의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시민학교	르라 자페 외	푸른숲
내가 만난 파리	최하예린	디자인하우스
아프리카에서의 30일	김충원	진선출판사
동편지 중국, 일본 탐방	김경일	대교출판
솔빛별 세계 여행기	조예솔 외	현암사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	이희수	청솔
지구촌 중요 사건 162	장길수	호리원
<노빈손> 시리즈	박경수, 장경애	뜨인 돌
세계자연유산답사	허용선	세계절
세계문화유산답사	서관순	세계절
인류 이야기 1-3권	헨드릭 빌럼 발룬	아이필드
아틀라스 시리즈 전5권	바바라 테일러 외	기린원
신화 따라 세계여행	이경덕	아이세움
알고싶어요 인디언	테아로스	산하
반쪽이 세계 오지를 가다	최정현	한겨레신문사
신나는 세계여행 전5권	표성흠	글사랑
세계의 역사를 보는 국가와 국기	신현신	한국어린이교 육연구원

먼나라 이웃나라 전7권	이원복	김영사
이원복 교수의 세계여행	이원복	사랑의 학교
이것이 세계 최고	최항숙	산하
나의 첫 세계여행	소파 아망	계림북스쿨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 전2권	이원복	두산동아
오르베성 사람들이 만든 지도책 전6권	프랑수아 플라스	솔
아이들을 위한 마르코폴로	제니스 허비스	승산
이븐 바투타의 여행	제임스 램포드	풀빛

2) 경제교육 관련서적들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았다.

(가) 본교 도서관에 있는 경제교육 관련서적 총 72종을 소개하고 도서관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나) 본교 도서관에 경제교육 관련서적은 많이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 경제교육을 중심으로 한 도서여서 '경제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에 적합한 도서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 원리와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활동 중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찾아볼 수 있도록 경제 원리와 관련된 도서들을 대여하여 교실에 비치해두고 활용하였다.

다) 아래의 경제관련 도서는 올해 유용하게 활용하였던 도서이다.

<표 4> '세계여행'에서 활용하였던 경제 관련 도서

활용 시기	활동주제	서적명	지은이	출판사	주요 활용 내용
2주	우리가 사는 세계	어린이 경제원론	김시래 강백향	명진출판	환춘, 환일이의 경제여행 (터키, 캄보디아,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3주	황사현상	지구를 구하는 경제책	강수돌	봄나무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생각하는 경제 왜 중국이 무서운 나라인가?
4주	무역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필상	상상공방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 / 잘 사는 길은 열려 있다
7주	세계의 화폐	화폐동화	황경아	영진키드	세계화폐 속의 주인공 화폐를 통한 문화와 역사
		화폐로 배우는 세계의 문화	배원준	가교출판	화폐에 담긴 각 나라의 문화 예술가들의 고향 유럽화폐 동식물의 천국 아프리카 화폐
8주	햄버거	재미있는 경제	정갑영	두산동아	글로벌 경쟁과 대기업의 역할

	지수	제			국제무역과 비교우위
9주	한류열풍	경제 이야기 51	송양민 이찬교	을파소	유명스타들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죠?
11주	잘 사는 나라	부자국민 일 등경제	이원복 송경락	김영사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의 경제전략
12주	나의 세계 일주	일본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	정영춘	서울 문화사	경제대국 일본의 생활과 문화 일본상품의 품질과 가격

(3) 인터넷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가) 인터넷 검색은 활동 중 많이 활용했던 자료수집 방법이였지만, 사소한 자료를 찾는 데도 시간 낭비가 무척 많아서 교사가 미리 검색하여 유용한 사이트를 준비하였다.

나) 아래의 사이트는 활동 중 유용하게 활용하였던 사이트이다.

<표 5> '세계여행'에서 활용하였던 인터넷 사이트

활용 시기	활동주제	사이트의 이름	사이트의 주소	사이트의 주요 내용
1주	동아리 조직	사진으로 보는 여행	www.where2where.com	사진 중심의 해외여행
		이글아이	www.eyefoeagle.co.kr	세계의 명소, 세계의 문화, 세계의 축제
2주	우리가 사는 세계	와우 트래블	www.travel.waw.co.kr	여행 정보, 나라별 여행 상식
3주	황사현상	환경부	www.me.kr/env1/index	초등학생을 위한 눈높이 환경교실
4주	무역	한국무역협회	www.ktia.net	무역과 관련한 정보
5주	에너지	청와대브리핑	www.president.go.kr	대통령 정상외교
		OPEC	www.opec.org	석유가격, 회원국(영어)
		대한석유협회	www.petroileum.or.kr	즐거운 석유여행, 국내대륙봉탐사현황, 해외 석유개발 진출현황
6주	월드컵 경제	독일월드컵 공식사이트	www.fifaworldcup.yahoo.com	월드컵 조편성, 월드컵 이야기, 협찬기업의 광고
7주	세계의 화폐	세계화폐	www.numerousmoney.com	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에 얽힌 이야기
		한국조폐공사	www.komsep.com	세계의 화폐, 도전 화폐박사

		넥스트투어	www.nexttour.co.kr	세계 각지의 여행 관련 동영상
10주	국제기구	외교통상부 APEC	www.apeckorea.go.kr	APEC의 회원국과 하는 일
		UN	www.un.org/Pub/CyberSchoolBus	교사와 학생을 위한 UN 안내 (영어)
11주	잘사는 나라	KOICA	www.koica.go.kr	해외봉사단이 활동하는 나라와 활동내용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www.unicef.or.kr	전쟁, 질병, 교육, 에이즈, 물, 재난과 지구촌 어린이
12주	나의 세계일주	한국관광공사	www.knto.or.kr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안내
		GEO Travel	www.geotravel.co.kr	국가, 도시별 여행 정보

다. 자기주도적으로 탐구주제를 선정하고 알맞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1) 9주째에 각자 탐구할 주제를 선정하였다.
- 2) 관련서적을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개인 탐구주제에 알맞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 3)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탐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주에 발표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4) 개인별 탐구주제

	이름	탐구 주제
1	조원휘	독일은 월드컵을 통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을까?
2	전명천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3	송경민	모래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캐나다
4	송종민	네덜란드는 어떻게 땅을 넓혔을까?
5	장 준	관광의 나라 스위스
6	김현빈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가 있는 나라 파라과이
7	정래황	일본은 잘 왜 잘 살게 되었을까?
8	나종욱	우리나라에 온 외국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곳
9	한성백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드라마
10	구옥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의 어린이
11	백지숙	양이 많은 나라 뉴질랜드
12	류가형	석유가 많이 나는 서남아시아의 나라들
13	김예지	물이 부족해요
14	송미선	놀이동산이 많은 나라 미국
15	윤준영	중국의 경제적 발전

4. 이런 활동도 있었습니다.

가. 다양한 게임을 활용하여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아이 엠 그라운드 게임’은 나라 이름, 도시 이름, 산 이름, 강 이름 등을 익히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 게임은 활동 중 수시로 활용하였다.

2) ‘지도찾기 게임’은 1, 2주에 나라, 도시, 강, 산, 호수 등의 이름을 익히기 위해 이름을 불러준 후 각자 가지고 있는 지도에서 빨리 찾도록 하였다. 이후에는 활동주제와 관련되는 나라의 이름을 포스트잇에 쓴 후 대형지도에서 그 나라의 위치를



<사진 10> 지도찾기 게임

찾아 빨리 붙이도록 하였다. 5주에 원유 생산국 찾기, 6주에 월드컵 결승 진출국 찾기 등의 활동에서 매우 유용하였다.

3) ‘세계최고 찾기’ 게임은 통계자료나 국가일람표를 보면서 활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도입 부분에 동기유발 자료로도 수시로 활용하였다. 11주에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를 찾을 때에도 매우 유용하였다.

4) ‘얼마일까요?’와 같은 추측 게임은 올해의 활동이 경제와 관련된 활동이었기 때문에 매우 많이 활용하였다.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가격을 골든 벨 게임판이나 화이트보드에 적어서



<사진 11> ‘얼마일까요?’ 게임

5) ‘빙고 게임’은 활동 후반부에 마무리 활동으로 주로 활용하였다. 16칸 빙고판과 도전 골든 벨을 위한 게임판을 양면으로 코

팅하여 활용하였다.

6) '카드 짝 맞추기' 게임은 학습 자료로 제작하였던 3부분 카드나 음식카드를 활용하였다. 활동에 필요한 카드를 빨리 찾아오게 하거나 카드를 모두 섞어 놓고 정해진 시간 안에 짝을 가장 많이 맞춘 개인 또는 모둠에게 점수를 주었다.

나. 직접 상품을 구입하는 체험학습을 했다.

- 1)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였던 활동으로 직접 상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상품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올해 활동 중에서 학생들이 장보기를 한 경우는 2번 있었다.
- 3) 4주째 <무역>에서 과자를 구입하여 과자 원료의 원산지를 알아보았으며, 8주째 <햄버거 지수>에서 각각 다른 가게에서 같은 회사의 동 일한 사이다를 구입하여 구입 가격을 비교해 보았다.



<사진 12> 과자원료의 원산지 살펴보기



<사진 13> 사이다 구입가격 비교

다. 세계여행 학습지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세계여행 학습지는 현재까지 총 8종을 교사가 제작하여 계발활동 중에 활용하였으며 자신의 활동상황은 물론 친구들과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개인파일에 추가하였다.

<세계여행 학습지의 예>

세계여행 학습지 6
5학년 1반 이준 송경민

1. 세계 여러나라의 동전들 그려 봅시다.

 (한국)	 (그리스)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2. 각 나라의 동전이나 화폐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봅시다.

① 원화(독일), 프랑크(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프랑크(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루브르(프랑스), 스위스, 마르크(독일)

② 일본(엔), 중국(위안), 영국(파운드),

③ 미국(달러)

3. 우리나라 돈 액수를 주면 미국의 돈 1달러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원은 대략 대략 1달러 정도다.

오금은 미국에 대한 환율이 떨어지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IV. 세계여행을 되돌아봅니다.

1. 이런 점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세계여행을 했던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자작 설문지를 통하여 사후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를 알 수 있었다.

가. 계발활동 '세계여행'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대해 알게 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86.7%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한 경우가 13.3%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활동을 통하여 보다 넓은 세계로 관심을 넓히는 데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나. 개발활동 ‘세계여행’의 활동 중에서 어떤 형태의 학습이 가장 즐거웠냐는 물음에 게임이나 퀴즈라고 응답을 한 경우는 73.3%,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응답을 한 경우가 20%로 나타난 반면에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보기와 인터넷 검색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7%에 불과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하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다. 개발활동 ‘세계여행’을 통하여 특별히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느냐는 물음에 경제활동이라고 응답을 한 경우가 60%, 역사와 문화라고 응답을 한 경우가 20%로 나타났으며 특이한 풍습은 13.3%, 자연환경은 6.7%에 불과하였다. 개발활동 초기와 비교하면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26.7%에서 60%로 높아진 것은 올해의 활동이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라. 1년 동안 개발활동 ‘세계여행’을 통하여 알게 된 나라 5곳과 그 나라에 대해 알게 된 점을 간단히 적어 보도록 하였는데 모두 31나라를 기록 하였다. 1명이 나라의 이름을 아프리카라고 잘못 썼으며 나라의 특징을 정확하게 쓰지 못한 경우가 4%로 나타났다. 개발활동 초기에 알고 있던 18나라보다 많이 늘어났으며, 알게 된 나라도 6대주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나타났다.

마. 실제로 여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으며 그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는 물음에 모두 13나라로 다양하게 썼으며 이탈리아와 이집트가 각각 13.3%로 나타났다. 그 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프랑스, 그리스, 티베트, 브라질, 인도, 페루, 스위스, 러시아가 있었다. 그 나라에서 하고 싶은 일

로는 그 나라의 경제생활도 알아보고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53.4%로 가장 많았으며, 유적을 보고 싶다는 의견이 33.3%,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다는 의견은 13.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세계여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2. 학생들은 ‘세계여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름	개발활동 ‘세계여행’에 대한 소감
1 조원휘	세계를 여행하며 여러 나라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 특히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2 전명천	직접 물건을 구입하여 원산지를 알아보고, 구입한 가격을 비교해 보는 활동이 재미있었다.
3 송경민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기뻐하고, 특히 다른 나라의 문화와 경제활동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
4 송종민	다른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또 하고 싶다.
5 장 준	과자와 음료수를 사오라고 하실 때 심부름을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공부도 하고,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6 김현빈	이 부서의 이름처럼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이었다. 게임과 퀴즈를 많이 하여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다.
7 정래황	진짜 여행을 갔다 온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8 나종욱	나는 작년부터 이 부서에서 활동을 해서 지도보는 방법을 잘 알게 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상품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9 한성백	다른 나라의 경제와 무역활동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10 구옥서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았다.
11 백지숙	딱딱하게 생각하였던 경제를 다른 나라를 여행하며 배우니까 참 재미있었다.
12 류가형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잘 살려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3 김에지	공부를 하다보니까 나도 열른 다른 나라를 가보고 싶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어른이 되면 많이 가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14 송미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15 윤준영	석유도 점점 없어지고 물도 부족하다는데 앞으로 전기와 물을 아껴서 써야 하겠다.

3. 이런 점을 기대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리듯, 학생들과 함께 한 ‘경제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은 나에게도 무척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에 국제이해교육을 하는 것이 무리한 일이었다는 지난해의 반성을 바탕으로 올해는 경제를 주제로 하여 세계여행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국제이해교육에서 경제적인 요소를 찾는 일이 쉽지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의 내용은 경제의 기초 원리, 합리적 구매와 사용, 소비자 문제 해결과 예방, 신 소비문화 창조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보다 넓은 세계로 관심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경제의 개념을 세계경제와 경제협력까지 넓혀서 지도계획을 세웠다.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나 국제이해교육학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와 활동자료가 제작되고 있지만 경제를 주제로 활동을 하려다보니 프로그램을 짜는 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2주일에 1번 격주로 하는 활동이어서 지도할 시간도 충분하지는 않았다.

여행도 즐겁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일은 더 설레이고 즐겁다. 준비하는 교사도 지도를 하면서 미처 몰랐던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며, 다음 여행을 위한 계획도 더 자세히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즐거웠던 것은 학생들이 보다 넓은 세계로 시야가 넓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었다. 3월에는 어리둥절해 하기만 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며 세계여행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된다 싶으면 자료를 들고 오는 적극성을 띠게도 되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갖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자신의 포부를 펼쳐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고 싶다.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경제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을 통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기 바란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온다고 했다.

가자! 세계로, 미래로!

참고 문헌

- 이삼열 외 (2003), 세계화시대의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정두용 외 (2003),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정민사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3), 세계시민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도서출판 사람생각
- 교육인적자원부 (200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개발활동,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4), 축구로 배우는 국제이해교육, 일조각
- 국제이해교육 통권 14호 (2005), 고래이빨과 돼지 주고 신부 데려오다, 일조각
- 국제이해교육 통권 16호 (2006), 깡봉땃띠, 세상과 처음 만나는 날, 일조각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4), 함께 배우고 나누는 세계의 교실 1 - 아태지역의 국제이해교육 수업모형, 도서출판 한울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4), 함께 배우고 나누는 세계의 교실 2 - 한국 교사의 국제이해교육 수업모형, 도서출판 한울
- 교사 경제교육 연수자료 (2005), 학교 경제 교육, 어린이 경제신문
- 재정경제부, KDI 경제정보센터 (2003), 어린이 경제교육

[활동 자료]

계발활동 '세계여행' 설문지 (사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발활동 '세계여행'은 여러분들을 보다 넓은 세계로 안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을 보다 넓은 세계로 잘 안내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니 아래의 질문에 자세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발활동 '세계여행' 지도교사

1.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어떤 점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적어 보세요.

예 : (파라과이) 남아메리카에 있으며 바다가 없고, 무척 더운 나라이다.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2.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보시오.

1) 그렇다. _____ 2) 아니다. _____

3.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섯 나라의 이름을 적어보시오.

4.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됩니까?

- 1)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_____ 2) 텔레비전을 보고 _____
3) 책을 통해서 _____ 4) 인터넷을 통해서 _____
5) 그 외의 방법 _____

5.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나라였는지 써 보세요.

1) 있다. _____ 2) 없다. _____

6.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여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또 그 나라에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이름 _____
하고 싶은 일 _____

7.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계여행 동아리를 통하여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여행 동아리를 통하여 가고 싶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세 나라만 적어 보세요.

8. 세계여행 동아리를 통해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각 나라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까?

1) 자연환경 _____ 2) 경제활동 _____ 3) 역사와 문화 _____ 4) 특이한 풍습 _____

계발활동 '세계여행' 설문지 (사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발활동 '세계여행'은 여러분들을 보다 넓은 세계로 안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을 보다 넓은 세계로 잘 안내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니 아래의 질문에 자세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발활동 '세계여행' 지도교사

1. 계발활동 '세계여행' 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대하여 알게 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1) 큰 도움이 되었다. _____ 2) 조금 도움이 되었다. _____
3)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_____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_____

2. 계발활동 '세계여행' 을 하면서 어떤 형태의 학습이 가장 즐거웠습니까?

- 1) 인터넷 검색 _____ 2) 게임이나 퀴즈 _____
3)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 듣기 _____ 4)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보기 _____

3. 계발활동 '세계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까?

- 1) 자연환경 _____ 2) 경제활동 _____
3) 역사와 문화 _____ 4) 특이한 풍습 _____

4. 1년 동안 계발활동 '세계여행' 을 하면서 알게 된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에 대하여 알게 된 점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예 : (파라과이) 남아메리카에 있으며 바다가 없고, 무척 더운 나라이다.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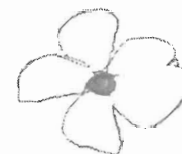
5.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여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또, 그 나라에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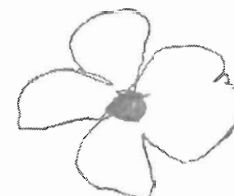
하고 싶은 일 :

6. 세계여행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을 적어 주세요.

<끝>



학회 안내



학회 임원 명단

<제4대 임원진 명단> (2006년 3월 ~ 2008년 2월)

회 장 : 정두용(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교육발전위위)

부 회 장 : 강순원(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한경구(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상임이사 : 이태주(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원장)

이 사 : 김갑성(경기 오정초등학교 교사)

김종훈(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실장)

김현덕(거제대학 교수)

서영순(백신고등학교 교감)

손주영(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원순자(경기 양감중학교 교장)

이승환(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업본부장)

정득진(한성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본부장)

조홍국(부산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허 숙(경인교육대학교 총장)

감 사 : 김인원(서울 잠신고등학교 교사)

이경자(서울 증산중학교 교사)

간 사 : 장연자(경인교육대학교 강사)

편집위원장 : 한경구(국민대)

편집 위원 : 강순원(한신대),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태주(한성대), 김종훈(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편집 간사 : 김다원(부천 상동중학교)

veritas2@chollian.net / 019-510-2576

학회 정관

학회의 정관(2000년 5월 19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제이해교육의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국제이해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이해교육의 근본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연차 및 수시 학술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국내외의 국제이해교육 및 인접 학술단체와의 제휴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 절차를 밟은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1. 각급학교 및 이에 종사하는 교원(유치원, 초·중·고·대학교)
 2. 국제이해교육 관련 연구 기관이나 행정 기관 및 이에 종사하고 있는 자(석·박사 과정 포함)
 3. 국제교류기관 및 그 기관이나 국제이해교육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에서 의결권과 발언권
 2. 본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본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본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는 권리
- ② 준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총회가 정하는 회비의 납부 의무

제8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4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12인 내외
4. 감사 2인
5. 고문 약간명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④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총회 선출직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5장 총회

제14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개최하며,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총회의 회의록) 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서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회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6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늦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본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입회와 퇴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7. 본회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8. 본회 사업과 관련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본회에 한국국제이해교육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이사회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상임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24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25조(사무국 설치)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가 이를 관장한다.

제26조(사무국의 구성) ① 사무국에 필요한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에 관한 제규정은 이사회에 정한다.

제8장 재점 및 회계

제27조(수입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28조(회비의 책정) ① 회비의 회비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의 연회비로 하며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본회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2조(정관개정) 본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33조(시행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의 본회의 정회원과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 또는 임원으로 본다.
3. (임원임기 예외규정) 초대임원의 임기는 2002년 2월말까지로 한다.

게재 논문 응모 안내

1.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소정 양식("국제이해교육 연구 게재 응모 논문 작성 양식" 참조)에 알맞게 작성한 논문을 편집위원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응모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국제이해교육 관련 전 분야의 연구 논문 및 실천사례 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여타의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합니다.
3. 게재 응모 논문은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며,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출된 논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 여부를 저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4.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응모자의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별도 공지합니다.
5. 논문의 분량은 연구 논문은 원고지 100매 내외, 실천사례연구는 원고지 50-70매 내외를 기본으로 합니다.

학회지 게재 응모 논문 작성 양식

1. 논문 작성

- (1)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 (2) 응모 논문의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다.
 - 논문 제목 : (한글) (영문)
 - 저자명 : (한글) (영문)
 - 소속기관명 : (한글) (영문)
 - 직위 :
 - 주요 관심 분야 :
 - 주소 :
 - 전화 번호 : (집) (사무실) (휴대폰)
 - 전자 메일 :
- (3)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한다.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 (4) 10줄 내외로 논문 내용을 요약하여 논문 제목 바로 다음 부분에 제시한다. 요약문 아래에는 주제어를 2-4개 제시하며, 필요시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 (5) 영문초록을 1,000단어 이내로 작성하여 참고문헌 다음 부분에 제시한다.
- (6) 논문은 이하에서 제시할 편집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2. 논문 편집 기준

- (1) 편집 용지
 - 용지 종류 : A4
 - 용지 여백 : 위쪽아래쪽 40, 왼쪽오른쪽 40, 머리말 13, 꼬리

말 10

(2) 본문

- 글자모양 : 휴먼명조, 크기 10.5, 장평 97, 자간 -3
- 문단모양 : 줄간격 175, 들여쓰기 2

(3) 논문 제목

- 글자모양 : 휴먼명조, 크기 16, 장평 97, 자간 -3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들여쓰기 0, 가운데 정렬

(4) 요약

- 글자모양 : 휴먼명조, 크기 9.5, 장평 97, 자간 -3
- 문단모양 : 줄간격 155, 들여쓰기 2

(5) 장, 절 등

- 1단계(I, II . . .) : 휴먼명조, 크기 14, 장평 97, 자간 -3 줄간격 175, 들여쓰기 0, 가운데 정렬
- 2단계(1, 2. . .) : 휴먼명조, 크기 12, 장평 97, 자간 -3 줄간격 175, 들여쓰기 2
- 3단계(가, 나. . .) : 휴먼명조, 크기 11, 장평 97, 자간 -3 줄간격 175, 들여쓰기 2, 문단 아래 2
- 4단계(1), 2). . .) : 휴먼고딕, 크기 11, 장평 97, 자간 -3 줄간격 175, 들여쓰기 2

(6) 인용문

- 글자모양 : 휴먼명조, 크기 9.5
- 문단모양 : 줄간격 175, 들여쓰기 2, 왼쪽여백 5

(7) 각주

- 글자모양 : 휴먼명조, 크기 9.5, 장평 97, 자간 -3
- 문단모양 : 줄간격 155, 왼쪽 여백 2.5, 내어쓰기 2.5

(8) 인용 문헌

-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1)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2001)은. . .

(예 2) 홍길동(2001 : 15)은. . .

-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 해당 면 등을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1) . . .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홍길동, 2001 : 18).

(예 2) 한 연구(홍길동, 2001; Anderson, 1999)에 의하면. . .

-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이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국문) 홍길동 외(2001)

(영문) Anderson et al.(2000)

(9) 참고문헌

- 참고문헌 제목 : 휴먼명조, 크기 13, 장평 97, 자간 -3 줄간격 170, 들여쓰기 0, 가운데 정렬
- 참고문헌 본문 : 휴먼명조, 크기 10, 장평 97, 자간 -3 줄간격 170, 왼쪽 여백 8, 내어쓰기 8
-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서적 순으로 열거한다.
- 단행본의 경우

홍길동(2001). *창의력*. 서울 : 공공출판사.

홍길동, 김기동(2001). *창의력과 평가*. 서울 : 공공출판사.

McMillan, J. H.(2001). *Classroom Assessment :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 (2nd Ed.). Boston : Allyn and Bacon.

※ 한글로 된 책이나 논문집 이름(권, 호수 제외)은 진하게 하며, 영문으로 된 책이나 논문집 이름은 이탤릭으로 함.

-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홍길동, 김기동(2001). 열린교육 평가를 위한 연구. *교육학연구* 39(2). 한국교육학회. 143-166.

Brookhart, S. M. & D. J. Freeman(1992). Character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3). 37-55.

- 학위논문의 경우

홍길동(2000). 기독교 신앙 행동의 측정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10) 영문초록

- 영문초록 제목 : 휴먼명조, 크기 13, 장평 97, 자간 -3, 줄간격 175, 들여쓰기0, 가운데 정렬

- 영문초록 본문 : 본문 스타일과 동일

(11)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에는 일련 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제시한다.

(예) <표 1>, [그림 1]

-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한다.

학회지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회 정관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국제이해 교육 연구지의 심사규정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 기준) 국제이해교육 연구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제의 적절성 : 대부분의 국제이해교육 분과 영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주제를 우선하고, 주제가 지나치게 특정분야에 국한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연구주제 혹은 연구문제의 독창성과 명료성
-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④ 학문발전의 기여도
- ⑤ 교육현장에 대한 적용가능성
- ⑥ 논지의 일관성 진술의 명확성

제3조(심사절차)

- ① 주제 분야 전문가 3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 ② 심사판정은 다음 3단계로 한다.
 - 가.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 나. 수정 후 재심사 :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
 - 다. 게재 불가 :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 ③ 3인 심사위원의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

이 결정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위원1인)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위원2인)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보류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보류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결정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④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⑤ “게재보류”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호에는 게재할 수 없다. 보류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다시 응모할 수 있다.
- ⑥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 응모할 수 없다.
- ⑦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제4조(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6조(접수마감일)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하고 당해 호 발간 대상 논문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으로 한다.

회원 가입 안내

1) 회원가입자격

학회 정관의 회원자격기준(제 3장 제 5조)에 해당하는 분에 한해 회원자격을 부여합니다.

2) 회원가입 신청 방법

- 회원가입양식 다운로드
- 회원가입양식 작성
- 아래의 이메일로 전송

* 간사 연락처 : whkgod@hanmail.net / 016-425-3859(장연자)

* 학회 계좌번호 : 농협) 204021-51-094040

<간기(刊記)>

이태주 한성대 사회교육원

서울 성북구 삼선동 3가 389 연구동 326호

tjlee@hansung.ac.kr

국제이해교육연구 제2호

2007년 11월 1일 인쇄

2007년 11월 7일 발행

발행인 : 정두용

발행처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주 소 : 서울 중구 명동2가 50-1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내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홈페이지 : <http://www.koseiu.or.kr>

전 화 : 02-774-3956

팩 스 : 02-774-3957

이메일 : veritas2@chol.com

제 작 : 커뮤니티출판사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07

비매품